東亞日報

本紙六面

東洋諸國의 國際聯盟
—企圖說과可能性—

一

最近에報道를 據하건대 駐米土耳其公使 施闊基耳氏는 今番土耳其를 訪問하고 土耳其政府와 條約締結에關한 交涉을開始하엿는데 그實은土國訪問은 中國 阿富汗斯坦 波斯 土耳其 勞農聯邦諸國을 網羅하야 東洋諸國의 國際聯盟의組織을 企圖計劃中이라고 傳한다 이것이 果然事實의 眞相인지 또는 強大列國의 猜疑的 邪推인지 斷言할수는 업스나 如何間 現下의 國際政局의 潮流와 東洋諸國의 形勢로 보아서 東洋諸國의 國際聯盟企圖說이 決코 一種의 宣傳뿐만아니라 多少의 可能性이 包含되어 잇는것을 一論코저 하는바이다

二

元來宇內統一主義와 世界一家의思想은 決코 近世의 新發明이 아니라 上古의 希臘時代로부터 宗敎家 哲學者 政治家의 理想的主張과 實際的計劃이 連綿不絶하엿든 것이다 往古의 史蹟을 按하여보건대 宗敎方面에 잇서서는 基督敎를 創始하야 羅馬의 法王時代에 이르기까지 그理想을 把持하게되엿스며 政治方面에 잇서서는 亞歷山大王을 創始하야 最近의 拿破崙 維廉二世에 이르기까지 軍事的統一을 實際로 計劃하엿스며 哲學者에 잇서서는 希臘의「푸라톤」을 비롯하야 獨逸의「칸트」에 이르기까지 力說提唱 하엿든것이다 그러나 從來의 主觀的 獨斷과 客觀的 理論은 모다 水泡 妄想에 歸하고 마랏든것이다 換言하면 宇內統一의 主義와 世界一家의 思潮는 人類共通의 理想이며 希望인것은 事實이엇스나 다못 實際的 計劃과 方法이 或은 武力의 專斷下에서 或은 信仰의 固執下에서 或은 學者의 空想下에서 世界人類의 共通된 感情과 利害를 無視하엿든 結果 失敗를 當하엿든것이다

三

그러나 人類의 理想은 高處로부터 落下된 物體와 갓치 目的地에 達하기까지는 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서 世界大戰의 終熄을 機會로 하야 宇內統一과 世界一家의 理想은 具體的으로 實現될 運道이 更强되엇다 하나는 民族自決主義를 基礎로 하야 美國政治家「윌손」氏의 提唱한 國際聯盟案이요 하나는 無產者 團結을 主義로 하야 勞農露西亞를 中心으로 한 第三國際黨의 出現이다 말하자면 前者는 各民族의 利害感情의 衝突을 前提로 하는 地方分權式 國際聯盟의 理想이니 現下 米國의 政治制度의 擴大한 것이라고 볼수가 잇고 後者는 無產者의 利害와 感情의 一致를 條件으로 하는 中央集權의 國際的 結合을 主張으로 하는 것이니 共產農政의 國際的統一案인 것은 勿論 必要도 업슬 것이다 그러나「윌손」氏의 提唱하는 國際聯盟案은 所謂帝國主義의 列强의 貪欲的 跋扈로 因하야 도로혀 强大國聯盟의 奇現象을 呈하게 되고 露西亞를 中心으로 한 第三國際黨은 歐洲의 …… 國際的勢力……

解決與否는 坑主態度에 全繫
英國炭坑爭議續聞

炭坑罷業의 解決을 希望하는 聲이 勞働側에 漸高하는中 去廿九日은 坑夫聯合會側과 勞働組合大會側과의 會見이 잇섯는데 此는 坑夫側代表「토마스」氏와 首相「볼드윈」氏가 會商한 結果 開催된것으로 罷業解決의 一般希望이 此에 繫附되는 것이다 그리하야「따ー비」와 倫敦「덜리」地方에서는 秘密交涉을 行하는中인데 形便에 依하면 此交涉으로 坑主側의 妥協運動이 생길는지도 不知이다「로이드‧쪼지」氏는 炭坑調查委員會의 報告를 採用하라 萬若不得已 必要한 境遇에는 政府에서 其非常時權力法下에 炭坑의 作業을 하라 坑夫側은 組織的의 協定下에 復業하기를 考慮한다 에서는 其實行的 地方的 協定을 全國的으로 統合하기를 認定한다는 保證을 得한 것으로 承認은 有望하게 되엿다더라 坑主側의 態度如何에 잇슬따름이라고 主張하엿더라(倫敦電)

解決有望
兩便의言質

勞働組合中의 炭坑爭議調停에 立한 者는 政府及炭坑夫兩者로부터 讓步를 得하게 되엿는데 第一은 炭坑夫로부터 는 紛爭地方의 解決案이 成立할때까지 地方的 協定下에 復業하기를 考慮한다 하며 第二는 政府로부터 는 其地方的協定을 全國的으로 統合하기를 認定한다는 保證을 得한것으로 解決은 有望하다더라(倫敦電)

로아리에서 佛獨兩代表會商
兩政府는 一切沈默

佛國外相「부리앙」氏와 駐佛獨逸大使「폰‧헤쉬」氏와의 二十八日會見은 佛獨兩政府共히 沈默을 守한다 그러나 一般에는「토아리」會商에서 決定한 政策과 此에 依하야 生하는 諸種問題가 兩者會談의 主要題目이 엇다고 觀測되며 다시 來週에도 兩者間會見이 잇슬 것이라는데 兩國政府가 沈默을 守하기때문에 兩國新聞도 저마다 論評하는 바 一般의 觀測으로는「부리앙」氏는 佛獨協調와 完全한 諒解에 對한 佛政府의 眞摯한 要求를 說明하엿다하며 獨逸外務長官「스트레제만」氏는「벨리나‧타게부랏트」紙에 公開狀을 發表하야 獨逸新聞一部가「토아리」政策을 崩壞하엿다고 論한 것을 否認하고 또 如斯한 計劃은 時日을 要한다하야 向者 氏가 發言한 警告를 反覆하고 그리고 一部獨逸新聞의 觀測과 顚倒한 氏가 至今까지 接受한 確報와는 全然反對이라고 述하엿더라(나우엔電)

全露共產黨 聯合大會
五個條項決定

十月二十五日全露共產黨聯合大會는 開催된바「루이쇼프」氏는 開會辭에 故「졔진스키」氏의 追悼辭를 述하고 革命의 鬪士로서 다시 얻기어려운 人物이라고 述한 後 幹部會議員의 選擧를 行한 結果「부하린」「위로시로프」「카리닌」「카가노프」「키로프」「쥐뷔예프」「메로토스」「아라헤라슈워치」「메르로프스킨」「루이쇼프」「스타린」「톰스키」「주반」의 諸氏가 選任되엿스며 다음에 左와 如히 事項을 決定하엿다더라

一、對外政策에 關한 問題「부하린」
二、國內經濟狀態에 關한 問題「루이쇼프」
三、職業同盟事業成績報告와 當面問題「톰스키」
四、反對派와 黨의 內情報告「스탈린」

孫傳芳南京還

三十日南昌方面을 視察한 孫傳芳氏는 卅一日九江에 到着한바 江西의 戰爭도 一段落을 告하엿슴으로 後事는 盧香亭氏에게 委托하고 三四日中에 南京으로 凱旋할터이라 하며 南京官民은 凱旋歡迎의 準備에 奔忙하다더라(南京電)

朝鮮民族 更生의 道 【三五】
生氣振作—理想樹立 —更生確信—不斷努力
文學士 崔鉉培

나는 여기에 民族的理想이라하엿다 이 民族的이란 形容詞에 對하야 異議를 提出할이가 잇슬는지 모르겟다「너는 엇지 偏狹하게도 何必 民族的理想이라 하는가 文明한 時代, 調達한 世界에 理想이거든 모름이 世界的理想 人類的理想이 今日世界人類各個의 追求할 것이 아닌가 民族이란 舊時代 舊制度의 遺物에 何必 戀戀의 생각을 부칠 必要가 무엇이냐」고 이제 讀者의 論據를 詳究하건대 民族이란 것은 資本主義의 社會制度에서 奪掠과 搾取 防衛의 必要下에서 서로 團結한 攻擊의 必要下에서 한 것이오 決코 永遠不變의 根據잇는 것이 아닌즉 만약 社會制度만 理想化하야 互相爭奪의 必要가 업는 社會가 實現할 것 가트면 民族이란 것이 아주 그 存在의 意義를 일허버릴 것이라 더구나 이러한 理想的 社會의 實現 人類平等 世界平和가 今日 世界人의 普遍的 理想이 될 것이다 이 人類共通의 世界主義를 버려두고 特히 民族的理想이라 하야 舊時代思想의 遺物인 民族主義를 固執하는 것이 不可하다함에 잇다

그러하다 나도 讀者와 가치 民族이란 것이 舊社會制度에서 衣食爭奪에 有利한 方便으로 하야 그 團結이 더욱 鞏固하여진 一面을 肯定한다 그러나 民族이란 것이 果然 純然한 資本主義란 偶然的 人爲的 社會制度의 一產物이며 一方便으로 今後 改造된 社會制度에서 當然히 消滅할 運命을 가진 아모 意義와 眞價를 가지지 아니한 것이냐 하면 우리는 이에 對하야 決코 輕輕히 肯定의 對答을 할수 업도다 왜 그러냐 民族의 區別이 생김은 첫재 血統이 다르며 둘재는 生活의 根據地가 다르며 셋재는 言語가 다르며 넷재는 그 特質이 다르며 다섯재는 歷史가 다름을 말미아마 이니 이제 아모리 物質的 平等의 社會가 實現된다 할지라도 이 五個의 條件이 一朝에 아니 漸次的으로도 消滅할 理가 萬無하도다 첫재 衣食問題만 解決되엇다고 異民族間의 婚姻이 進展하야 全然히 血統의 遺傳의 差別이 아주 업서질 理가 업스며 둘재는 아모리 飛行機 無線電話가 發達될지라도 世上사람이 장 飛行機만 타고 世界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生活의 根據地조차가 必要업는 地境에 이를 것은 想像치 못할 것이다 이미 生活의 根據地가 잇다 하며 그 根據地의 氣候風土等 自然的 環境을 달리하야 그 心理와 特質이 서로 異同이 생길 것은 定한 것이다 寒帶人은 寒帶人의 特質이 잇을 것이오 熱帶人은 熱帶人의 特質을 가질 것이다 大陸民族과 島國人이 그 特質이 다를 것이며 沙漠의 사람과 森林地帶의 사람이 서로 갓지 아니할 것이다 셋재 言語란 것은 그 民族의 精神的 產物이다 그럼으로 各民族의 精神的 特性이 서로 다름을 따라 그 言語가 또한 갓지 아니하다 言語學上에서 言語에 族이 잇음을 말하야 이 言語族이라 하나니 그 各語族에는 各其 特異한 性質이 잇음은 學者의 다 認定하는 바이다 그럼으로 言語로써 그 民族의 特性을 察知할 수가 잇는 것이다 이것은 繁雜한 問題이니 여기에는 그 詳論을 略하고 다만 言語와 그 民族이 莫大한 深切한 關係가 잇음만 들어두자 民族의 精神活動은 그 特有의 言語를 낫고 그 言語는 또 그 民族의 精神을 陶冶하야 民族感을 鞏固히 結合하는 것이다 그러고 그 言語가 가진 各民族의 言語가 그만 업서지고 全世界가 한 말로 統一될 理는 萬無할 것이다 將來에 비록「에쓰페란토」나 或 그와 가튼 類의 말 二十餘種의 말가운데 어느것이 世界共通語로 實現되는 時代가 오기를 기다린다 (나는 그 時代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한아이지마는) 各民族의 固有의 言語가 廢絶될 理는 無한 것이다 넷재는 牛乳를 가리키어「液體의 사람」이라고 한 物質의 作品을 그 氣候風土의 遺傳과 環境의 調練의 所賜인즉 또「사람은 機械이라」한 極端物質主義의 哲學者도 잇섯지마는 우리의 생각에는 아모리 物質的 分配가 質量兩面으로 公平하게 되엿다 假定할지라도 그로 因하야 各民族의 心理와 特質에 差異가 업서질 것은 밋지 못하겟다 마주막에 各民族의 過去의 歷史는 決코 다만 衣食爭奪의 物質的 歷史만이 아니오 精神的 歷史가 그 重要한 部分이 되나니 이제 비록 物質平均의 社會가 實現된다 하더라도 過去의 長久한 歷史的 背景을 가히 모호할 수 업시 그만 살어저버리겟느냐 하면 그는 到底히 그러치 아니하리라 한다 人類社會에 各個民族이 잇는 것의 歷史가 서로 다름과 가치 將來의 歷史도 또한 서로 다름이 잇지 아니할 수 업을 것이다 世界에 民族을 일은 者 甚히 만타 그러나 그러한 族에는 그런 族의 特質과 特長이 잇고 異한 族은 異族의 特質과 特長이 잇스며 漢族은 漢族의 特質과 特長이 잇고 蒙族은 蒙族의 特質과 特長이 잇다 그 連綿한 血統(卽人種)의 遺傳과 環境의 自然的 影響(卽氣候風土)과 久遠한 歷史的 訓練(卽民族의 所賜인즉 甲民族의 特質과 特長으로써 乙民族의 그것에 代用치 못할 것이니 이것이 곳 各民族의 獨特한 意義와 價値가 잇는 것이다 勿論 우리도 人類의 共通性 잇음을 認한다 그러나 同時에 各民族의 特殊性이 잇음을 또한 認定한다 그러한즉 各個의 民族은 제작각의 特異한 天賦를 自由로 發揮하야 人類의 繁榮한 文化의 進步란 共通의 大理想의 完成(勿論 理想의 完成은 永遠한 것이나 우리사람의 努力은) 위에 잇슬 것이지마는 우리 各民族의 努力하는 것이 곳 各民族의 理想이오 同時에 全人類의 大理想이 되는 것이니 이런 것이 眞正한 民族主義란 것이다 今後에도 民族主義를 是認하고 이를『新文化的民族主義』이라 할 것이다 新時代의 民族主義는 이를 相互扶助의 民族主義라 할 것이다 前者가 人類의 社會的 進化의 一階段에서 그 一時的 任務를 遂行하고서 인제 그 活動의 마당을 退去할 黃昏에 잇슴에 對하야 後者는 人類進化의 最高階段에서 그 永遠한 任務를 遂行코자 바야흐로 새단장으로서 새舞臺에 出現하는 黎明에 잇는 것이다

漢冶萍問題 順調進捗?
日本側讓步로

大藏省富田理財局長은 一日商工省을 訪問하고 漢冶萍問題에 就하야 協議한바 同問題에 就하야 中國代表는 極히 強硬한 態度를 秉持하야 事態에 依하야서는 直時歸國하는 同時에 日本에 對한 阿片輸送을 停止하리라고 하고 잇섯스나 協議는 意外圓滿히 進捗하야 近近妥協案을 見하게 될듯하다 卽 新規運轉資金의 繼續融通 借款 價引下等에 對하야서는 日本側에서 相當히 讓步한 貌樣이라더라(東京電)

「體驗이잇는 日國民同情熱望」
不平等條約改正問題와 顏代理總理의聲明

特別會見에서 顏維鈞氏는 日本朝野에 對하야 左와 如히 聲明하엿다더라(北京一日電)

不平等條約改訂希望은 一政黨派의 一部官級의 主張이 아니고 全國民의 要求가 아니고 數十年前에 不平等條約撤廢의 經驗이 잇는 日本國民이 深甚한 同情을 與하기를 熱望한다 中國의 不平等條約은 엇던 故障으로 當時 日本의 그것과 同樣의 것이 잇서 國民은 全力을 다하야 改訂에 努力하고 잇다 그리고 中國國民이 條約改訂을 希望하는 程度는 日本國民의 希望함보다 더욱 깁흔 者가 잇스며 中國國民은 日本國民의 깁흔 理解를 期待하고 잇다 今回의 條約改訂은 다만 中國을 爲하야서 만이 아니라 日本도 同樣의 利益을 享受할 것이라고 信한다 今日外지 日中親善은 全혀 言論만의 親善으로 事實上表示된것은 하나도 업다 此機會에 日中間의 親善에 實際化되야 具體化함을 事實로 示하야 兩國의 親善을 一層 깁히하려고 條約改訂의 完成이 必要하다고 信한다 云云

記者團招待

顏外交總長은 一日中國新聞記者團을 招待하고 日中通商條約改訂은 될수잇는때에로 和平手段에 依하야 中國의 要求를 達成하도록 努力하기 때문에 ……

西伯利軍敎熱
各地青年積極的參加

西伯利에서의 軍事訓練熱에 關하야 二十九日「이스웨스치야」紙의 報道는 左와 如하더라(哈爾賓電)

西伯利에는 目下全露國防協會員 約一七,〇〇〇名이 잇서 그中 七,〇〇〇名은 赤軍在營者는 一〇,〇〇〇名이 地方人民中의 會員인바 가장 積極的으로 參加하는 者는 青年이다 國防協會事業이 가장 活潑하고 잇는 곳은「옴스크」「노보시비르스크」「크라스노얍스크」이며 「일크츠크」及 智多地方으로 옮겨 開催된 軍國日은 西伯利至各都市에 共히 盛大히 舉行되야 空前의 好成績을 收得하엿스며「노오시비르스크」가튼 곳은 軍國日 當日에 六千人以上이 積極的으로 參加하엿고 目下 陸軍部內에는 一二五個所의 軍事研究團을 有하고 人民側에는 二五四의 軍教團이 잇는데 右二五四中 一〇〇은 村落農民이 組織하엿다더라

通商條約問題
外相에 一任
二日의 定例閣議

二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 開會, 幣原外相으로부터 日中通商條約改訂에 關하야 報告한 後 大體로 國務法制에 抵觸치 안는 範圍에서 改訂에 應한다는 데 一致하고 大綱宣言은 外相에 一任하기로 決한 後 當面政務를 審議하고 午後一時散會하엿더라(東京電)

滿洲方面行政
整理統一案
特別委員에 附託

各部事務系統整理에 關한 件은 一日行政調查會總會에서 特別委員會에 附託된바 幹事會作製에 係한 原案은 從來 滿洲方面에 關한 各種行政施設은 官制上及實際上 各種의 行政系統에 分하야 外務省, 關東廳, 朝鮮總督府, 南滿鐵道會社에 分屬하야 頗히 錯雜한바가 잇슴으로 此를 統一하기로 한 것인데 此件은 外部의 注視하는 重大案件이라 委員會의 結果如何는 注目되는 바이더라(東京電)

中國動亂과 赤軍參謀本部
馮蔣을援助하야 張吳等掃蕩 延하야 日英勢力도 驅逐計劃
三分一은 이미 實現
(哈市右黨紙가 摘發)

先般哈爾賓右派「루스고에‧슬로보」紙가 赤露의 計劃이라고 題하고 赤軍參謀本部와 中國動亂에 關한 秘密通信員의 記事를 詳細히 揭載한바 其大要를 左에 述하면

一九二四年에 勞農革命軍事會議는 勞農露國의 同盟者에 依하야 指揮될 革命運動及親露運動을 援助할 目的으로 特別策戰委員會를 組織하엿다 右委員會는 革命運動의 各地戰況을 研究하야 共同動作을 策하며 或은 適宜한 指令을 與한다 蔣介石及馮玉祥氏等의 黑幕임은 多言을 不要한다 委員會는 必要한 境遇 動亂地에 顧問을 派遣하엿다 例컨대 廣東에 勞農의 軍事專門家를 派遣하야 赤軍의 編成을 하게 한것 等으로 今回 革命運動의 北伐軍은 此等專門家의 指揮를 受한 者이다 처음 委員會는 馮玉祥氏를 援助하고 張吳를 徹底的으로 排斥할 心算이엇든바 期에 反하야 생각보다 馮氏의 實力은 薄弱하야 昨年 張吳의 聯合軍에게 打破되야 거의 部下를 收拾치 못하게 되엿다 이에 잇서 委員會는 顧問을 送하야 敗軍을 整理하는 一方 馮氏를 莫斯科로 召喚하엿다 委員會는 馮氏를 無力하다고 보고 잇든바 이미 馮氏가 忠實한「레닌」主義임으로 다시 決意하고 新策을 援助하엿는데 馮氏 此에 感激하야 勞農의 人으로 再立한 것이다 이에 잇서 特別委員會는 中國에 對한 新計畫을 樹立한바 此計劃은 敗戰後 滿洲의 狀態를 巧妙히 利用한 것으로

一、廣東軍을 攻勢에 轉하게하고 馮軍의 編成改替를 行하야 北京以西地方을 死守함
二、廣東軍의 北進을 圖함
三、新編成의 馮軍을 北京의 東南에 進出식힘
四、吳軍討伐로 因하야 馮氏와 廣東의 聯合을 組織함
五、滿洲의 北部國境에 勞農軍을 集中하야 張軍을 牽制하고 張吳軍을 打破하야 北京及上海를 占領할 事

此計畫의 三分之一은 이미 遂行되엿스며 新幹部에 擁護된 馮氏는 委員會의 指針으로 計畫의 實行과 再企圖하려고 歸來하엿스며 又 勞農軍事專門家는 이미 …… 今後形勢가 如何히 展開할는지 …… 勞農露國은 中國에 對한 新計劃을 …… 滿洲에 張을 孤立하며 그 勢力의 伸張을 …… 하는 것이더라(哈爾賓電)

赤露, 北滿에 積極的進出策
쌀지산隊編成計劃
廣東代表近近赴露?

最近某官憲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中國動亂에 乘하고 잇는 露國共產黨은 一步를 進하야 烏蘇里線「이만」地方에 有力한「쌀지산」隊를 組織하고 在住한 朝鮮中國人勞働者를 集合하야 一舉에 北滿進出을 劃策中이라는데 現在廣東革命軍의 李濟琛氏는 此에 連絡키 爲하야 近近 露領에 赴하리라고 傳하더라

總同盟內部에서 勞農黨脫退反對
本部專擅을 憤慨하야

總同盟本部가 勞働農民黨脫退에 對하야서는 斷乎히 反對한다는 聲明書를 發表하게 되엿다 右에 對하야 勞農黨支部에서 脫退할 事及 地方的 政黨組織에 着手할 事等과 指令을 下하엿는데 各所屬組合內에서는 總同盟本部가 勞農黨脫退의 行動에 關하야 內心에 不快히 생각하며 總同盟幹部의 專橫이라고 非難하는 者가 漸次로 增加하야 神奈川縣聯合會 所屬組合中 神奈川合同勞働組合, 關東紡織勞働組合, 川崎支部, 東京電氣從業員組合有志, 神奈川石油勞働組合有志, 神奈川鐵工組合有志等은 神奈川縣聯合會理事會에서 勞働組合의 態度에 不信을 抱하야 勞農黨에서 總同盟의 脫退한것을 遺憾으로 勞農黨을 支持하게 되엿다 이번 十五年度 全國大會가 決議한 勞農黨은 總同盟本部自身이 紊亂한 者임으로서 「我等은 ……」……

勞働農民黨
各地支部脫退

勞働農民黨과 總同盟의 脫退에 伴하야 各地方의 總同盟系 勞農黨支部는 支部를 解散하고 脫退하는 者가 續出하야 ……(東京電)

製陶同盟도 勞農黨에서 脫退
同黨前途는 頗히 悲觀

勞働農民黨도 呱呱의 聲을 擧하자 總同盟外四團體가 脫退를 表明하고 殘餘는 日本農民組合을 中心하야 全國水平社及 製陶同盟으로서 黨을 守하고 잇섯스나 製陶同盟도 脫退의 氣勢에 接하야 同黨에는 其前途는 甚히 悲觀이며 左傾分子의 影子를 絶하고 그…… 來十二月一日議會解散命令이라는데 불안한 狀態에 잇서 勞農黨의 前途는 甚히 悲觀이더라(東京電)

海軍費決定과 建造計畫協議
海軍省主腦會議

海軍補助艦建造費는 海軍大藏兩省의 妥協에 依하야 二億五千九百萬圓으로 決한바 此에 對한 年割額은 一般豫算査定額과 共히 三日大藏省으로부터 通牒될터이다 그런데 海軍省에서는 一日大臣室에서 財部海相 鈴木軍令部長等 首腦部가 會合하야 建造軍艦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航空母艦若干의 代艦六千噸級의 航空母艦一隻(建造費六百萬圓)을 復活하는 代身에 潛水艦大型一千七百噸級을 削減하기로 決하고 大藏省에 對하야 諒解를 求하기로 되엿다더라(東京電)

地方費 土木事業
國庫補助로 六十七萬三千餘圓

地方費新規土木事業에 對하야서는 各道共히 全部地方費及府面費의 豫算을 考慮計劃하야 國庫補助를 申請한 것인바 그中 大正十六年度 支出補助額은

河川	二八六,八三三,〇〇
港灣	三七六,七〇〇,〇〇
上下水道	七一六,三八七,八〇〇
市街	一,一九七,〇〇〇,〇〇〇

道路	一,九三八,四〇〇,〇〇〇
計	四,五一九,三二〇,八〇〇

에 達하엿다 그런데 總督府로서는 元來全額의 容認은 財政上 못되는 이엇스며 前年度末의 繼續補助도 잇다하야 極度의 緊縮方針을 取한 結果 內務局이 來年度新規補助額으로 財務局에 提出하야 政務總監의 容認을 得하려 한 所謂 第一次查定額은

道路	六五〇,〇〇〇
港灣	二一五,〇〇〇
市街	五〇,〇〇〇
河川	四〇,二五〇
上下水道	二一〇,二〇〇
計	一,一六五,五五〇

等으로 總額補助를 合하야 二百八萬七千五百五十圓으로 하기로 되엿슴은 財務局에서는 第二次及第三次의 查定을 行하야 繼續 第一次査定額보다도 四十八萬二千二百五十圓을 削減하야 六十七萬三千三百圓의 新規補助를 容認하기로 되엿스며 그 內譯은 左와 如하다더라

	最終查定額	第一次查定額	削減額
道路	三四五,〇〇〇	六五〇,〇〇〇	三〇五,〇〇〇
市街	四〇,〇〇〇	五〇,〇〇〇	一〇,〇〇〇
上下水	一一三,三〇〇	二一〇,二〇〇	九六,九〇〇
河川	二〇,〇〇〇	四〇,二五〇	二〇,二五〇
港灣	一五五,〇〇〇	二一五,〇〇〇	六〇,〇〇〇
計	六七三,三〇〇	一,一六五,五五〇	四九二,二五〇

又前年度末繼續補助額은 大正十五年度百二十一萬八千三百圓인바 此中大正十五年度限의 補助를 撤廢하게 될 者八件二十八萬六千三百圓이 잇기 때문에 新規補助額 六十七萬三千三百圓을 容認하여도 實際豫算의 增加額은 三十八萬七千圓으로 된다더라

來年土木豫算
總額一千三十萬圓

來年度土木豫算은 約一千三十萬圓에 達하야 本年度豫算보다 는 百八十萬圓의 增加를 見하엿스며 此內容은 前年度來繼續의 十個年計劃에 依한 道路港灣河川의 經費의 增加約五十萬圓에 達하야 그 內譯은

道路	三十萬圓增
港灣	二十萬圓增
河川	前年同額

이라는데 來年度부터 總督府의 方針으로서 道路港灣河川의 修築災害復舊(漢江橋大寧江城川江)에 約三十萬圓을 增加하며 地方土木費補助에 約三十九萬圓增加 其他應急治水事業費地方土木事業調査費等 小額의 增加로 約三十萬圓에 達한 것이라더라

辭令

朝鮮總督府道事務官 宮永文一
任朝鮮總督府事務官(三等)
命警務局保安課長
總督府郡守 松田全一郎
依願免本官

橫說竪說

◇ 伊首相「못소리니」君은, 마즌 銃彈이 마침 勳章에 가 的中되야서, 一命이 無難하엿다고

◇ 勳章의 功勳이 正히 勳一等勳章에 値하거니와, 勳章두루마이 를지어입으면, 더욱 妙할듯

◇ 次期議會가 解散될가 바 怯이나 는, 政本黨系 一部가, 一木氏를 몰어내어, 政本聯立內閣을 꿈 꾼다고, 再當選은 斷念한 晒的

◇ 東京市에는, 伯爵未亡人이라 稱하고, 豪奢한 生活을 繼續하는 中年美人이 잇섯는데, 其實 은 强盜專門이엇다든가, 伯爵 은 熙歌인가는 呪文으로 알앗든 지

赤玉ポートワイン
적옥포ー트완인
美味 滋養 葡萄酒
朝夕의 一杯 百藥보다 나다

623

直輸入商 山口樂器店
京城本町二丁目(交番所前)
專賣品 山口運動具製造所
▲山을 갈 때 피아노 ▲鈴木바요링 만도린 ▲蓄音器 레코드 ▲라켓 수케트 ▲洋樂器運動具一式

植木과果樹
◆ 各種果樹, 花木, 山林苗木
◆ 販賣 及 ……
◆ 照會하시압
朝鮮農園本店
京城 …… 一七一

不肖 約一個年間 貴郡在勤中公私間에 格別한 厚情을 賜하옵고 何等의 功을 奏한 바 無하오나 …… 金堤人士各位

新案品 好評嘖嘖!!
實用理髮器
美裝函入 附屬品 入
八種添付
日本理髮器具會社 朝鮮總代理店
京城 …… 長尾金寶堂

六十萬歲事件第一回公判

「擧事의動機와目的은 三尺童子라도可知」

=벽두의심문은평동사건의리병립 뭇는대로명쾌하게대답하는진술=

審問劈頭、被告의陳述要領

금년륙월이십사일에 긔소된이래 지금까지 취개월동안이나 연긔에연긔를거듭하여오든 륙월십일○○사건의주모한쌍 리병립(李柄立)외 십명에대한 공판은작보한바와가치 이일오전열시십오분부터 경성디방법원대법뎡에서 강본(江本)재판장의단독심리와리견(里見)검사의립회로 개뎡되엿다 당일재판소에는 이공판을구경하라는사람들이 아츰부터구름모히듯하야법뎡문밧게는 사람의바다를일우엇섯는데 그한편으로서에서는 다수한경관을 출동식히어 이를경계케하며 법뎡안에 드러가는사람은 일일히 신데를수색하고야 드려보내는 상태이엿다 그방텽자중에는 피고학생들의가족들을비롯하야 중앙고등보통학교교당최두선(崔斗善)씨외각관계학교교당과 교무주임 등도보히고 그외에는 일반방텽자로써데만원이엿다

半個年獄窓에 血色은蒼白으로

=차신만세이후반개년간옥창에 혈색조차창백하여진피고일동=

深笠手鎖의十一名被告

때는오전아홉시=피고학생열한명은 서대문형무소 미결감독방으로부터 각기간수에게 얽니여버여수인(囚人)자동차를타고 재판소가감에듯니어잇다가오전열시경에 모다엄중한 경계속에 집흔삿갓을쓰고 쇠수갑을찬후법뎡으로 들어와 각기피고석에착석하엿다 륙월십일 사건이후경찰서류치장을거처형무소미결감독방에서 전후여섯달동안이라는 긴세월을 신유하여왓슴으로 피고일동의한명은 모다얼골이창백하여지어 혈색이업서 보히는데 그들의주소와성명은

平洞事件被告

本籍安東郡 住所京城水標町四三 中央高普五年生 李先鎬(二三)
京城太平通二丁目一九八 延禧文科二年生 李柄立(二三)
京城貫鐵洞一二四 京城帝大豫科一年生 李天鎭(二二)
京城竹添町一丁目三六 無職 朴斗鍾(二二)
京城竹添町一丁目三六의一六 延禧文科一年生 朴河均(二四)

通洞事件被告

京城桂洞三五 中央高普四年生 柳冕熙(二二)
本籍達城郡 住所通洞七一 中央高普五年生 朴龍圭(二一)
本籍金堤郡 住所濟洞二四七 中東學校特科二年生 郭載燁(一九)
本籍任實郡 住所京城通洞七一 中東特科二年生 金載文(二一)
本籍益山郡 住所樂園洞二五五 中東特科三年生 黃廷煥(二三)
本籍井邑郡 住所京城齊洞三二 中央高普五年生 李東煥(二六)

計劃으로實行

=前後經過의詳細內容=

동일한명으로 재판당의 심리는먼저리병립부터 시작되엿다

李柄立陳述

재판당의뭇는 말에피고는 명쾌한일본말로 지금까지 처분밧은일은 업섯고부모는 모친밧게업스며동생은 넷이잇고 중학은졸업하고 종교는밋는것이업다고 답변한후련하야

재판당 피고는 유월십일국장일관수교우에서 국장 행렬이지나갈때 격문을뿌리며 ○○○○만세를불럿는가
피고 그럿소
재판당 그것은 무삼 목뎍으로불럿는가
피고 그것은 폐하난 아페라도다일일이너구리여무를필요도업는줄아오
재판당 엇지하야 하필 국장당일에만세를불럿는가
피고 그날을유일한긔회로생각하고그랫소
재판당 피고는○○○을희망하는가
피고 희망합니다
재판당
피고
재판당 피고는그것을밋는가
피고 비확실히 밋고잇소
재판당 피고는사회주의서적을 본일잇는가
피고 잇소

이와가튼 문답이잇슨후 계속하야「피고는리왕뎐하승하하신후 조선학생회관에서피고리선호등과종종맛나 국장당일 거사할일에대한이야기와 륙월칠일 피고박두종의집에 여러동지들이 모혀서 인산날계획에대한 여러가지사항을 구체뎍으로 의론하엿다는말과 륙월팔일 서대문밧엇던송림속에서 동지들과 함께태극긔를 륙십여개를만들고 그다음날인 구일에는 시내 평동(平洞)십이번디김종찬(金鍾讚)의집에서 박하균 박두종등과가치모혀 명항인쇄긔재한대를 구입하야 피고가원고를 지어가지고두사람의찬성을어더 그날밤열한시까지 격문일만여장을 인쇄하여두엇다가 국장당일 거사하엿다는등의 답변이잇슨후 또다시재판당으로부터피고가 ○○만세를부른것은 피고의 ○○심을 일반에알리기위함이엿지」하고물으매 피고는 엄숙한빗을변하며「그것은 나의량심상붓득이하야 부른것이오 나의○○심을일반에게 알리기나하라는 권바한생각은 아니엿소」

午後一時半休廷

박하균(朴河均)리선호(李先鎬)의신문을맛치고 오후한시반에 휴뎡을하엿는데 피고네명의 답변은 대개비슷하엿다더라

太極旗製作과

=격문인쇄하는것을담당하여=

朴斗鍾陳述

피고의가족은 네사람사오 모친만잇스며 재산은 약이만원가량된다는 답변이잇슨후 련하야재판당으로부터
재판당 피고는사회주의를연구하엿는가
피고 연구할마음은잇섯소마는 아즉착수는안햇섯소
재판당 피고는인산당일황금뎡오뎡목사범학교압해서○○만세를불른일이잇섯는가
피고 네잇섯소
재판당 만세를불른동긔와경로를한번말하여보라
피고 동긔는삼척동자라도알일이오 경로는앗가 리병립이가다말한듯하오
재판당 피고는○○○을목뎍하고잇섯든가
피고 물론평소부터그가튼사상을가지고잇섯는데 류월칠일 리천진、리선호、리병립등이 나의집을차자와서 거괴을 말하기에 그게획을 찬성하고 나도○○을하기로결심하엿섯소

련하야 태극긔만든 경로와격문인쇄한경로등에대하야는리병립의답변과 일치되는 답변을한후 태극긔만든재료는 피고가내엿고 인쇄긔게는 리병립의말을뜻고 피고가가서 차저왓다는 등의답변이잇슨후또다시재판당으로부터 ○○만세를 불른동긔를말하라고 재우처뭇는말에 피고는 그것은앗가도 말하지안엇느냐고 오히려반문을하며「 」는의미의 답변이잇슨후 재판당으로 인쇄긔게와기타증거품등을 보이며 당시피고가 사용하든것에 틀림업느냐고물으매 틀림업다고하며 피고가장래에는 엇더한 행동을취하게될는지는 모르지만 고엄려한말로써 답변을 맛치엇다(한시긔 ― 이하는명일에)

在滿同胞赤化에 高麗共產員潛入

모방면에도달한정보에의지하면 「쏘비에트」공산당에서는동삼성(東三省)의적화속성을하기위하야 금일까지다수한조선인과로서아사람중국사람등을잠입케하얏섯는데 이번에 새로히고려공산당원(高麗共產黨員)중으로부터 다섯명을선발하야재만조선사람들에게절더히적화를식히고자게획중이라더라(모처전보)

◇寫眞說明◇ 上은삿갓을쓴피고등과심문밧는리병립 下는몰린방청객과법뎡을향한피고들

南北에不絕하는銃聲의餘響

搜索의注力處는 長淵出生의魯某

=동대문밧게서세경을데포한후 당연출생인로모를극력수탐해=

西大門署의活動續報

재작일일새벽네시경에 시내서대문서 무장형사대가동대문밧(東大門外)신설리(新設里)작보○○방면은신설리(新設里)에서흉괴를가진청년세명을 데포하야엄중한취조를하는중 이러한은직보와갓거니와 동서고동게에서는 계속하야붉은문서와작란감권총등을 압수하고계속하야황해도장연(黃海道長淵)출생으로 얼마전에해외로부터조선에건너와 지난십월십구일경에입성하엿든 로모(魯某)를사방으로수색하는동 자못긴장한활동을계속하는중인데 피착된청년들은 금년봄에시내정동(貞洞)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等普通學校)를졸업한시외동대문밧신설리(東大門外新設里)리충식(李忠植)(二三)외 두명으로 상당한지식파가범이잇는청년들로 작이일와지취조한결과로보아서는 수은동(授恩洞)사건의진범인은안인듯하나 엇던맥락을 통하여가지고모모중대한게획을 하든것은 틀님업는사실인듯하며 동사건에는비밀의열쇠를 가진듯한권괴로모를 데포하기전 에는 취조도곤난할뿐만아니라 범인의계통도 불분명하다는데아즉사건의내용은 절대비밀에부친다더라

魏某를秘密取調

=혐의자중에데일중요=

수은동(授恩洞)사건 발생이후로종로(鍾路)경찰서에서는 매일사오명식의 용의자를검거하다가는 흉이나다행히무슨사실이걸려나올가하고 취조를하는중이라한다 수사하는방면은려관은물론 조금만이상한곳이면 빼여놋치안코 뒤지여서외국에가잇다가 작년에드러온사람 멧달전에드려온사람할것업시 모주리불려다가하로밤이틀밤식 재우고는허랑만치고는 내어보내군하야수은동사건이발생하든 이십오일이래삼십여명이 취조를바덧스나거개석방되고 재작일일밤현재네명의 검속자가잇섯는데그중에는 오랫동안북경(北京)방면에서○○운동에 활동하든위모(魏某)란청년한명이 가장유력한혐의가잇다하야 삼륜(三輪)주임과길야(吉野)경부보가다른형사들도 아지못하게비밀히취조중이라더라

樂園洞店舖에서 前日에도脅迫

=일나든전날에락원동점방에서 려비강청하든범인을새로수색=

授恩洞事件과推測犯人

수은동(授恩洞)권총사건발생된지벌서 십여일이되도록진범검거에 의연히 활동을계속하엿스나 업로망치안은 수원(水原)범인가튼혐의자만 검거하야진범인의종적은의연묘연하야 사건은장차미궁에 차차들모양인데종래희미하고 불분명한범인인상(人相)으로여러가지수사에실패를당한도경찰부에서는 재작일일에돌연히범인의인상을달니하고관내각서에통고하야 새로운활동을시작하게 되엿다는데그내용은수은동 사건이니러나기전날인이십사일 피살된권괴영(金?榮)의아우권의영(金英榮)이가경영하는시내락원동(樂園洞)시탄장에 엇던수상한 청년이와서 자긔는시골서올나온청년으로 려비를청구하엿스나권괴권의영은 단연거절을하야그청년은 욕설을퍼붓고로괴동동하야 도라간일이잇섯는데 그잇흔날권괴영이가 피살을당한던당포에는 권의영의문패가 부터잇슴으로 그를형의하야닷자곳자로사살을 한것이시탄장으로차저왓든 청년의범행이틀림업다하야 그청년의인상으로 활동케되엿것이라는데 모경찰측에서는 종래의인상은사건이발생되든어둠컴컴한중에서 보앗다는희미하고 불분명한인상으로말미암아 진범인을커간여려번노치여버리엿는지도 모른다하야 새로운활동을하는중이라더라

開闢記者檢束

지난이십구일오전열한시경에충남공주금강관(公州錦江館)에서열닌남북긔자대회(南北記者大會)는무사히맛치고다시동오후일곱시경에 그곳영락관(永樂館)에서 간친회(懇親會)가열녀 감상담을하게되엿든바개벽(開闢)중부영동지사긔자오중순(吳?淳)(二二)군이과격한말을하엿다고공주경찰서에서는 익일오전 아홉시경에구금하고취조중이라더라(공주)

平壤拳銃青年은 日本人으로判明

=취조한결과일인으로판명=

작보=일일오전한시경에평양부서긔산공원(平壤府箕山公園)에서권총과 단도를가진청년두사람이 잡혓다함은 긔보와갓거니와 그들은모다 입을다물고말을하지아니함으로성명과년령이며 보적지갓흔것을 아직도압수가업슬뿐아니라 일본인인지조선인인지도 모르겟다는데 그들이잡히든경로를드르면동일오전령시이십분경에평양서소림순사(小林巡査)가그부근을순회하든중 수상한사람두명이 그공원에잇슴을보고 누구냐고 무름에머리가압파서 산보하는 사람이라고일본말로대답하나그순사는수상한뎜을발견하고곳신체를검사하야「부로닝」식권련발권총한자루와실탄이십개를발견하고또한청년은양복을입고여섯치가량되는단도를가지고잇슴으로곳평양서까지 다리고가서 검속하고취조를하는 중이나 그들은모다일본인인척하고 도모지 말을아니하나 생긴것으로보아서는 조선사람갓흠으로평양서에서각처에인상을조회중이던바필경본일인으로관명되엿다더라(평양)

本町事件後報

작보=시내본뎡(本町)경찰서고동게형사본장수일(本庄修一)(三八)이가지난달삼십일일오후열시이십분경에 권총을가지고수색차로 황금뎡(黃金町)이뎡목을통행하다가 술취한일본인길야뎡(吉野町)일뎡목삼십번디사는 사뎐국차랑(寺田菊次郎)(三二)을사살한사건은 방금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서 취조를밧는중인데 파연파실로쏘아진것인지흑은 위협하노라고고의로쏘는것인지 아직진상에대하여는알수가업스나 본정형사가가졋든권총이「부로우닝」식임으로안전장치가잇는 까닭에 그와가치함부로 발사될리치가업다하여두사람이서로 권총을쌔아슬라다가잠챙이 져앙된결과고의로쏜것이아닌가 하는말도잇더라

高等係主任談 이에대하야 본뎡서화뎐(大和田)고등게주임은
「고의로쏜것은 결대로아닐줄압니다 사뎐이가 권총을쌔아슬라고하기때문에겨루를한갈과거우본장형사가손에쥐게되엿섯는데 사뎐이가 달려드러또빼스고저 하는바람에 총구(銃口)가사뎐의배에정면으로향하게되자 사뎐의손이 방아쇠에걸리여 그와가치 발사된것입니다」하더라

【署長은緘口】 령목본뎡서댱(鈴木本町署長)은「방금검사국의취조를밧는중이닛가장차판명 되겟지요 그러나지금고의니파실이니하는것을명언할수업습니다」하며만흔말을하고커아니하더라

江景에拳銃青年 典當舖를襲擊

=권총가진청년이뎐당포를습격 서긔를위협후구십원을가저가=

犯人踪跡은亦是杳然

지난삼십일오후열시경에론산군강경면 대화뎡(論山郡江景面大和町)진공수뎐당포(陳公洙典當舖)에중원모자에 양복입은권총청년한명이 돌입하야 던긔뎐당포서긔두명에게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구십일원을 바다가지고어대로인지 종적을 교묘히감추엇다는데 소할 강경서에서는 서원총출로범인을수색하는한편으로 각디로비상선을 놉히고대수색을한다하며 이보고를졉한충남도경찰부에도수색에착수하야 방금활동하는중이라더라(공주)

現今朝鮮日報社編輯次長兼發行人 年前米國에서開催된萬國記者大會副會長 金東成 先生謹作
無先生 速修 英語獨學
子로쓰極美本洋裝·頁數二百卅頁 定價一圓卅錢 送料郵稅十六錢
●出版界의新記錄인英語獨學은!!
●好評이嘖嘖한속에初版이將盡!!!
●地方注文이暴風雨가치殺到!!!
著者는일즉이十年間米國에留學하야半島에有數한英語學者로、年前萬國記者大會에參列한바잇서、外人과交遊한이數十星霜이다!! 此書는長久한實地應用에基하야가장捷徑과速成의妙方을公開함이니初學者의自習辭典만아니라英語에多少消養이有한人士의良友이며「뿍아쉬」(Bookish)英語를免하라는中等學生의不可無한錦囊이다
=보라!= 天下의愛讀者여 英語獨學은今日에이나와도다
發行所 永昌書館 韓興書林
新刊目錄 請求次第 無代進呈

謹告
今般本人이東洋大學堂을讓受하와營業하오니倍前愛護하심을敬望하오며從來去來上債權과債務는一切本人에게關係가無함
京城府鍾路一丁目七五番地 東洋大學堂主 宋完

蹴球 實費販賣 特製 我國商會
品質善良價格低廉 堅固無比好評如湧

我國商會洋靴部 全鮮到處熱狂的大歡迎
最新式 學生帽子 實費提供 我國商會

質긴고무신 萬世고무 京城府中林洞 萬世고무工業所

유모 量구합니다 光化門通九一 池承祚에게로오십시요

金銀美術 潤光商會 主任 金仁洙

齒科醫師 金昌圭 齒科專門 金昌齒科醫院 診察隨意 齒科一般診療!! 釜山府草梁町百濟醫院前

青煉製 品質本位 시스다비누 シスター石鹼 本舖 大阪 栗津石鹼製造所

어멈문뎨 (一)

사람대접못밧는 불상한안잠자기

◇서울안에만하더라도 만명이상의 혹은어멈 혹은할멈이라는남의집사는부인이 잇슬것이다 만명이라고만하여도적지아니한 수지마는 아마그이상 잇슬것이다 어만여명어멈이라는계급의문뎨는 분명히한사회문뎨다 첫재만여명이라는수효가그러하고 둘재그만여명이가련한부인이란점으로 그러하고 셋재그것이어린아동들이자라나는가뎡의일이기때문에 더욱중요한 사회문뎨다

◇불상한 부인이라면 방적회사의직공 담배공장의직공 정미소직공을 생각하거니와 남의집사는부인네는 아즉도문뎨에오르지아니한모양가트다 이문뎨는 다만사회문뎨일뿐아니라 특별히우리부인들이 생각할문뎨다 왜그런고하면 남의집사는부인을부리는이가 그집에주부되는 부인들이기때문이다

◇남의살이에도 종류가 만타 녯날법대로 종으로잇는이도잇서 대대로 그집에서나고 늙고 죽는것이어니와 근래에는 종이란것은 거진업서진모양이오 대개는 상방의 자유재약으로 월급을 작뎡하고 고용하는사람들이다 월급에는 작뎡이업서 아모때에나주인편이 실허면 내여보낼수가잇고 또고용편이실흐면 나갈수도잇다 이것이얼는보기에 자유인듯하나기실은 못박어종보다도 도로혀생활의안뎡이업다 종은병이 나면 치료해주고 자식이나면 길러주고 죽으면 무더주지마는 남의집사리하는 부인은 언제쫏겨날는지도 모른다 주부의눈에만나면 밤人중에라도 쫏겨날수잇고 식전새벽에라도 쫏겨날수잇다 그러면조고마한때무든보통이 하나를들고길가에 방황하면서 누가불러주지아니하나하고 가다린다

◇남의집살이하는이중에도 여러가지 등급이잇다 유모 침모 식모 막심부름하는 하인이이 모양으로 계급이잇서서 유모와 침모는월급도 좀만코대우도좀나앗다 유모침모이하를통칭안잠자기라고도 부른다 밥짓고불때고 빨래하고걸레치는계급은 대개 주인집식구에게종으로의 대우를밧는다 그래서혹은집퓽을따라 마감마님 녕감마님 나리마님 서방님 도련님을 고이고 녀자주인이면로마님 마님 아씨 작은아씨 아가씨등을 고이고 그대신 주인은그들에게대하야『해라』(량반계급에서)『하게』(평민계급에서)를밧는다 일홈은종이아니라도 대우는 종의대우를밧는 것이다 다만고용한집주인 에게만그대우를밧는것이아니라 그집친척에게까지 그대우를밧고 가치남의집살이하는유모, 침모등속에게까지 이하는 반상뎐과 종의계급이분명히살아가뎡안에는 아직도상놈과량반 상뎐과 종의계급이분명히살아잇다

◇관념이상뎐과종이기때문에 주인되는이는 이불상한부인계급을자기네와 동등의인류로치지아니하야 이것저것하고부르는 일조차잇다 그럼으로그들은 자유의인격의 대우를밧지못하고 해가떠서 해가지기까지격정만듯고 꾸중만듯고 빈정거림만듯고 간혹 칭찬을밧는다하면 『고맙다』는말뿐이다

◇주부되는이들은흔히 『그것들이사람인가』하고『흉치는것』『쇠부리는것』『더러운것』『미들수업는것』으로 이불상한동포들의특징을삼는다 사실상남의집사리하는이들은 흉치는일도잇고 남의살림이라고 제집살림처럼하지아니하는폐도잇고 동네人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인人집 험담을하는폐단도잇고 또더럽기도하다 그러나여기대하야주부되는이는 두가지로 생각할것이잇다고밋는다 (계속)

過渡期의一般傾向과朝鮮女性의敏感性 (下)

玉順喆

먼저도말한바갓치過渡期一般의心理는依然히現實을떠나憧憬의世界를거닐게한다 따라서우리朝鮮女性들도避치못할時代的一現狀이라고하겟스나歐米女性의그것과現下朝鮮女性과는特殊한事情이有함을말아니할수업다 歐米의女性은數百年間에歷史的進化過程을經過하야왓슴에反하야朝鮮의女性은不過十數年間에歐米의五十年乃至百年에近한歷史過程을短縮하야밟게되엿슴으로一時에急進的으로모라오는刺激으로相反의諸性을갓게되엿다고하겟다 只今生覺에는一時過渡期의現狀이라고만하기難한가장危險性帶文明의中毒狀態라고말하겟다

只今朝鮮女性으로의叛逆性또는退嬰性을가지고自由資本主義에中毒된不平을부르짓게된動機와由來를考察한다하면基督教와朝鮮女性의關係를말아니할수업고니와歐米와基督教本旨는論할必要도업고다만敎育또는實際를떠난敎育이라고할수잇다 (前略에는宗敎關係로削除하나)

다시말하면不知不識間에資本主義社會의余燼인歐米思想에鼓吹되야나지못한資本主義中流者를만드러노앗다 所謂先覺이라는女性들도資本主義社會의自由解放이며中流階級以上의家庭的安樂을말함에不過하다 爲先朝鮮의經濟的狀態를보다 最近總督府社會課調査에依하면農家平均一戶에收入이中小作五百九十一圓支出이五百九十六圓小小作收入이二百七十四圓에支出이二百九十八圓이니五圓또는二十四圓의不足을보게된다 農村이이러하고都市勞働者는말할餘地도업게되다 政治上으로보다하면日本의○○地이니日本○○地라면그○○地에對한政策의一束은보와도살수가잇슬가하는疑心이나게된다 殖民地에對한朝鮮의말은그만두고라도엇던雜誌를보니外來殖民地에는本國으로부터過度한搾取를하여不過數十年內外의殖民地의百姓은다죽어버려여도로여本國의失敗로도라갓다고하엿슴을보와도그얼마나우리의現狀이두려운지를모르겟다 現狀이모다特殊한事情을가지고잇는니만큼合當한態度로實地朝鮮이라는것을잡어주엇스면하는가운데이글을쓰게되엿다

에새로운新相이나思想에對하야社會의權利와幸福을爲하야는그新興勢力을壓伏하려고는아니할것이다 쏠트려보와도다죽어가는만에中產階級以上의理想家庭뿐부의꿈만가며떠드니實地로朝鮮을生覺하야곱치가압흐다고아니할수업다 家庭云云이야可笑롭고또憾絕함을아다 그러나生活을設計는可能할는지實現은消滅할것이다 朝鮮의農村都市의우리生活이그얼마나前途가暗澹한지를밟고서 自由도解放도떠들어야할것이다 目前의朝鮮社會의先進女性이오中心人物인先生들의講演은都是資本社會를모르고그자랑에뷔여노는질모르는處女들에게拔擢이조치못한일을말하야는다 아니하여도理想的家庭圓滿한生活은人類로하여금共通된思想이나 그것은現社會에서符合할理가萬無할것이다 大衆을救하려면大衆속에드러가야하나니朝鮮의靑年男女는犧牲的精神으로大衆의辛酸을갓치맛보면서未來의○○社會外지차위야할使命을가저야하겟다 (終)

◇신랑신부◇

경성사립보성고등보통학교(私立普成高等普通學校)를졸업하고모회사에다니는장경봉(張鏡鳳)군과경성진명녀자고등보통학교(進明女子高等普通學校)를졸업한 홍우희(洪又姬)양은지난일일에 중앙긔독교청년회관내에서 성대한결혼식을거행하엿다고합니다 (사진은신랑신부)

소녀웅변회금일

반도소년회(半島少年會)주최소년웅변대회(少年雄辯大會)는금일하오칠시부터시텬교당(侍天敎堂)내에서개최된다고합니다

慶州邑誌에對한私見

宋錫夏

徵據그러치만더욱今般과가치外國의專門家들이와서 내나라의녯일을차저가지고 雄辯하다니 慚愧하다니할때마다 내나라사람의손으로그것을 闡明하지못함을못그럽다할는지가憶하다고할는지何如間異常한말이난다 똑바로말하면 所謂古代에文化를가젓다는 나라가온데우리나라처럼文獻의保存이되지안한나라도적다 平壤附近(意味는조금다르나) 慶州에잇는藝術作品을볼때에當時에文化發達의狀態를알아는데史記 野史 小說等可히所用잇슬만한것이 몃낫치나傳해왓는가 論者는말하리라 思想이달나것슴으로因하야文獻을업샛다 또는兵亂으로或은李朝에와서는 僞撰의發狂으로! 勿論事實이겟지 그러나싱겁기짝이업는일이다

新羅의맨첫쪽머기부터라도斷今二千年쯤되는데當時의文獻을우리눈압헤 보여주지안는것도大端섭섭한일인데 그中에멋낫後人이지은것쯤차 僞로찻스니알들하게도만듬어노앗다

年前에一學徒로慶州로가서卜年의그리운녯벗을만나 鄕頊의萊邑에갓슬때에 同君으로부터鄕頊의이야기를듯고 源花花郞의녯일을聯想하야 古都를다시한번도라다보앗다 失禮의말이나 배보다배꼽이크다는格으로慶州는남이想像한것보다 我國에서有名한音樂都며 妓生有名가량은언제든지靑酬에應하리라한다 또하나慶州人士는過去와現在 未來를超越하고 잇는이가암만하여도만흔듯하다

말이엽실로갓스나 宿所를某寺에定한後數日에 士姊되시는某氏에邑誌의借覽을願하엿더니意外에同氏는邑誌가업다한다 本是邑誌가잇섯스나 壬辰倭亂에업서지고 現存한것은麗末에된東京誌의改名한東京雜記뿐이라함으로好奇心이이러나기始作햇다 其後몃칠뒤에同佛國居住하는某氏가佛供次로왓기에邑誌에對하야물어보니 前에某氏가한말과同一함을보니 아마壬辰亂時에倭兵이寺院을破壞하고寶物에慾心을만히낸듯한다(이에對하여서는後日詳述할機會가잇슬가한다) 그리고後者의言中에邑誌는現今日本에만다시保存되여잇스리라하며 郡守도日本서보앗는데 東京雜記와는다르더라고햇다한다 이런말을듯고 더욱慶州邑誌와新羅史에疑心이나는中에하나怪異한것은 前에내가寫하여둔月城記序文이라는것이잇섯슴으로 邑誌를調査하기始作하여서結果는以下에말할것과가치意味업시되고말앗다

順序로東京雜記부터볼진대現今閱卷間에잇는것은麗末에金桑村이所選한것을 顯宗己酉에閔周冕이增修刊行 肅宗辛卯에南至薰이重刊 憲宗乙巳에成原默이增補改名東京雜記刊行이라고하는데모다三國遺事其他에서서뭇아맨든것이고十年前에六堂崔南善氏가發刊한東京雜記가잇다는데아즉읽어볼機會를엇지못함을遺憾으로思한다 다음에 日本의慶州誌에對하야서는 前川郡守라함은現郡守朴光烈氏인데 親交가업슴으로友人에附托하여물어본結果古本이아니라 奧田悌著大邱玉村書店刊行慶州誌라한다 此書는卷頭에도記載하엿거니와其參考로는現今世間에잇는것以外에는 數三의私見뿐이며其他에日本에잇는書籍은京都大谷大學圖書館에大正元年刊木村靜雄著慶州誌及雞林類事가잇스나 읽어보지못하얏다 (또雞林類事下에는宋、孫穆이라하엿스니慶州의雞林인지未詳) 東京日比谷、上野帝國圖書館에도업는貌樣이며 東洋文庫에는아즉調査하여보지못하엿다

내가謄寫하여둔月城記序文이라는것은어느書籍을보아도찻지못하얏스며 이月城記序文이手中에드러온來歷은 慶州서謄寫한것이나그出處가怪常하며 또邑誌의序文인지도未詳함으로以下轉載하야識者의助를밧고저하는바이다

月城記序文

月城東國之勝概也三韓首國千年古都大隆首出主朴出於雞井昔出於雞石(?)金出於雞林三班之祖與上古神君之同也黃帝軒轅氏母見大電而繞北斗樞星感而生姜嫄見巨人跡心欣然而生后稷玄鳥隕卵吞之生漢太祖龍興沛上種氣以出神君之生豈不美哉豈不神哉三姓踐祚以來相[illegible]相授能效唐虞之聖繼歷年之數過於周之八百也國泰民安四方安靜人和物阜事亨迎君義臣忠八條目分明父慈子孝三綱五倫昭然邦畿千里惟民所止奕奕美哉山河之固東國之寶也若其修德者不在險乎凡此地形左通右達天府之地南閩北斗王者之都小中華之稱號士大夫之冀北伊江山之秀氣與人物之華繁不一可記而昭鮮氣勢北有黃龍之險辟淤流麗南有數川之淵大海東臨無邊爲里諸山西立無數千峯國鳳凰嵩高國自金陵雁鴨池諸雁來瀾湘南山麗玉勝於崑崙之光彩西岳徹月桂來峨嵋之半輪雲壓八萬九峰之佛月掛四十八陵之秋金鍾依舊萬斤之瑕玉笛如新千秋之聲三賢居牛禮樂制度無異於鄒魯之鄉六府列峨衣冠文物不下於晉漢之都七廟宮之敎化孔夫子之道風五陵所之列像天皇君之歐明八怪是爲萬古不變之怪三奇在茲千秋有名之奇四大姓轉居南州之華閣七美寶之化出東京之貨財盤龍千府之震天川之奇線龍湫萬丈之勢地裂之海原龍涌見江州無水悲馬盛哉書求多騎兵近日在東日不暇給淸道在西道不給澄蔚山在南山不長老永川在北川不流悲惟我東壤數千里地勢南而南漢深大旺高而北反還千年如昨江山不變衣冠更新桑今便倒爲姓成出八域仰思如北巢都之事略有萬一之記曉余顧作慶州南抽暇一日奉論致庭之記仍然記爲(原文)

右文을볼진대誤字도잇고 不明한데도잇고 作文된年代도羅代는아닌듯하다 發掘品으로서當時의狀態를엿보나할이께에는眞實한文獻이잇섯스면하는하라범맘이나서이글을揮한다(完)

附記 其後에某人으로부터此文은奉德寺鐘閣上樑文으로麗末道師作이라는敎示를바덧스나後考에맛긴다

가을의서름

培花女高 朴姬貞

해마다해마다 가을이와서
푸른풀이 마르고
싸늘한 바람이불어
나뭇닙떠러질때면은
모든사람 설다고함니다

◇

해마다해마다 가을이와서
왕울리며受苦하야 거두어노흔
벗낫가리가 마음에깁부고
살밤에 배는불너도
모든사람 설다고함니다

◇

해마다해마다 가을이와서
一年食糧을 다ー豫備한후
閑暇한겨울밤에
즐겁게安息할것을 김버하면서도
모든사람은 설다고함니다

童話詩 옴바를차저서

申孤松作

녯날도 녯날녯적 아주녯날에
순이는 어머니를 일허버리고
무서운 계모를 마첫슴니다
날마다 그어미는 어린순이를
함부로 따리면서 못살게해요

차듸찬 겨울날이 닥쳐와서
풀들과 나무들은 고라젓고요
새들은 하나업시 숨엇슴니다
어미는 풋나물이 먹고십다고
순이를 캐오라고 또차냄니다
순이는 벌벌떨며 쏫겨나가서
바구니 엽헤끼고 나섯슴니다

겨울에 풋나물이 잇깟슴닛가
들판에 헤치도록 해매이여도
나물은 한줌도 못캣슴니다
어느듯 해는저서 어두어오고
차듸찬 저녁바람 몸을싯치고
나물을 못캣순이 가이업서요
한곳에 이르르니 집하나잇서
닷친문두다리며 『문좀열어요』
안에서 글읽든 청대룡
나와서 문을열고 내여다보니
어엽븐 순이가 서서잇서요
순이는 완갓말을 모다햇드니
들어와 하로밤만 쉬고가라요
순이는 청대룡이 하라는대로
주는쌀 싯처서 뜨물바다서
마당에 고이고이 부어두드니
자고나 마당으로 나가보닛가

나물이 왼마당에 갓득함니다
순이는 그나물을 모드여담고
고마운 치하하고 떠낫슴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또가라거든
『정대룡순이왓소문열어주오』
부르며 정대룡을 차저주세요
어머니 그나물을 삶아먹고서
순이가 겨울날에 어듸를가서
나물을 캐오는지 알아보라고
또다시 나물을 캐오랍니다
어미는 쥐가되어 따러감니다
『정대룡순이왓소문열어주오』
글소리 낫치드니 정대룡나와
반기며 순이를 마저줍니다
쥐가된 어머니는 안에들어가
모든것 보고서는 도라갓세요
이튼날 어머니는 제나나서서
나물캐 오마하고 나갓슴니다
뎡대룡 집에가서 문을치면서
『정대룡순이왓소문열어주오』
정대룡 뛰어나와 열엇슴니다
정대룡 어머니를 처다보고는
순이가 아니니가 뛰여들어가
흰말을 타고나와 다라낫서요
어미는 나물도 캐지못하고
맨손에 집으로 도라갓세요
어미는 순이를 죄이면서요
『나물을나는나는 못캐왓스니
또다시 네가가서 캐오렴으나』
순이는 그런줄도 알지못하고
밧그로 나물캐러 나섯슴니다
『정대룡순이왓소문열어주오』
순이는 멧번이나 불너봣스나
안에선 아모도 안나옴니다
안으로 담을넘어 들어가보닛가
정대룡 책을쎄고 어듸갓는지
순이는 슬허서 울엇슴니다
정대룡 차즈려고 나섯슴니다
멧해나 이곳저곳 헤메엿스나
아차차 정대룡은 못차젓세요
한곳에 니르르니 새쏫는아해
『후여후여 후여후이 이놈새놈아
오날만 쏘아먹고서 내일날에는
정대룡이 장가드는데
목어며 먹고서 오질마러라』
순이는 그말듯고 반겨하여서
『이애야 너그소리한번더해라
그러면 은가락지 너에게주마』
『이애야 정대룡집어듸잇느냐
알려줌 옥가락지 너에게주마』
순이는 정대룡의 집을차저서
『신중이동량왓소시주하세요』
우리집 부처님은 쌀콩도말고
좁쌀을 조하하나 그것주세요
길가는 신중에게시주하세요』
일부러 어든좁쌀 업허버리고
째로서 줍다가는 해가젓서요
『어듸에 빈곳에다오날하로밤
쉬여야하겟다』는고 줄나밧드니
헛간에 자고서는 가라함니다
정대룡 밤가운데 달이밝아서
뜰압헤 나와서 보고십허서
『저달아 밝은달아 더는가
순이가 잇는곳을 너는아는가』
헛간에 누어잇든 순이가듯고
을마나 반갑고 질거울가요
『정대룡정대룡 설어마려요
당신이 그리워서 바라는순이
이곳에 누어잇는줄 몰으십닛가』
『순아야 정말인가순인가보다』
『옵빠야 순이가여기잇세요』
『순아야 그리면은어리나와요』
어니아옵빠야 반겨하면서
두리는 얼싸안고 눈물지워요
—끗

프로文學論

金良元君에與함

高火山

朝鮮의現今新興프로文學은存在부터疑心하리만큼 微弱한것은事實이다 그는아즉初期이고 또한同時에 움이트는프로文學의生長을阻害하는바 또한其반外닭이다 現今의프로文學의文學自身으로의存在는 비록그러타하더라도 그의勢力은決코微하지안타 現下朝鮮프로作品이 우리의期待에滿足을주지못하는것은事實이다

作家에게도 그責任이업는것은아니겟스나 이는우리의要求를滿足케할作品을發表할수업는環境을 가진外닭이라아니할수업다 朝鮮之光에실닌作品을보아라 半以上이나削除를當하엿더냐!? 削除를不이나當한作品에도其實우리의要求를 滿足케할作品이못되거든 하물며참된우리의要求를表現할作品이야 어데一字인들發表할수가잇스랴!! 프로文學에對하야可謂大膽이한金良元君은 이事實을是認하는가? 否認하는가?

「現下朝鮮의 프로作品은文字上으로 外國의프로作品의模倣한模倣에不過하며 그것도發達한藝術的感激으로던지 興奮된마음으로쓰엿스면 그래도取할點이多少잇스련만 現在朝鮮프로作品은 衆皆가無感激한생각으로다못 發表키爲하야 假名키爲하야쓴것으로 아모힘도生命도업다」 말한金君아! 于先發刺한藝術的感激이란 何를指함이뇨? 勿論多少先輩의表現手段은빌어옴는지모르나 萬一外國作品을模倣하엿더래도 그것은프로作品다운프로作品을짓기爲함일것이다 그리고그대가말한바와가튼 無生命한作品의發表가무슨名擧스러우랴? 金君이여! 그대는엇던作品을보고말한바인가 君의論辯이 얼마나잔인한가 나는朝鮮文壇에서 참生命이뛰는힘잇는作品을 (君이無感激한作品만을發見한現下文壇에서) 發見하엿노라 趙抱石、李箕永、金永八、朴憾月、柳赤驅等諸氏의創作中에서 만히發見하엿노라 現在에잇서서그數가決코 아조적은것이라고는 생각지안는다 存關等이發表한그따위『봉조아』의게는렵하다 그런것을보고君은프로文藝作品이라認하엿든가? 그러타하면 크게잘못이다 가엽슨일이다 萬一君이以上에列擧한여러분의作品 (勿論그들作品中에도그러치안은 것도잇기는잇다) 中에서即그들의作品을보고아모感激을가진바잇섯다면君은俗情한『봉조아』일것에틀니지안을것이라한다 君自身은無産者라고하나 프로레타리아文學이라고 아니다 프로作品은언제든지프로로階級의生活相을그리는것은 프로階級的感情思想이흠으지안으면資格이업는것이다 개의生活相을그린다던지 무엇을그리던지 프로레타리아的으로쓴것이라야 프로作品일것이다 프로階級이아니고는 프로階級의內面을잘알수업다는것은勿論이다 나는잘안다 오늘날朝鮮프로作家라고見認밧는諸氏는모다프로階級인것을! 프로階級의事情과形便을同夫人하고散步하다가본것 술집窓門으로본것 이것으로作品의材料를삼아 老作品이잇슴은거짓말이아니다 想涉 漂流等의作中에서發見할수잇는것이다

朝鮮의프로作品을모다그럿케본다는것은큰誤解다 그러하면 抱石君의作品이 그러타고君은보는가? 그러나너머나理解업는 勞働階級에서 實地體驗으로 나온作品을 君은 模倣이라고 無感激이라고 하는가 金君은아즉朝鮮에는 프로階級이 藝術作品을 이러케보아야할것이다 故로프로文學은 이때에 必要한것이다 朝鮮에서無用하다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가 金君은 말한바잇섯다 프로文藝가 그만한 自由가업다 時間도업스려니와 讀者의 自由와 讀者의 生活을 그릴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프로階級이 敎養의 機會가 업는 것을 理由로 하야 프로文士는 그作品을 프로에게 읽게하고자 할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프로文士는 무엇보다도 自由로 그作品을 發表할수업는 것이 그의 큰 不幸이다

金君! 프로階級이 본다고 부르조아 作品이 프로作品이 될수는 萬無한것이다 讀者에 標準한 것이 아니라 作品의 精神에 依하야 標準할 것이다 金君은 아즉朝鮮에는 프로作家가 될 수업스니가 프로藝術이 存在가 干先無用하다고 말햇스나 이것은 朝鮮의 現實을 모르는 말이다 知識階級과 무산계급이 한데 뭉처야 할 것이다 그러면 朝鮮에도 참된 프로藝術이 잇슬 것이오 나는 金君의 말에 不可能하다고 말햇다 그리고 프로藝術運動은 進行할것이다

肺病徹底的特殊治療法의完成

肺病患者는刮目하시고이ー부르지즘을드르시오!

可恐할病菌은年年히幾千萬의天才와偉人을빼서가오

肺結核、肺癆、肋膜炎、肺尖カタール(가다ー루)、氣管支尖カタール(가다ー루)、喉頭結核、腸結核、結核性、腹膜炎에苦痛하시는位는偉効를가진本療法을實行하시오

肺病徹底的特殊治療藥의完成

成質의眞價는無限의偉力이다

도루덴쓰버루겐創見者 醫學士 靑山先生談

肺病에對한世人의謬見

一般世人은肺病의二字로써死의宣告와갓치誤想하는者不少하다 그럼으로確實히認知하고라도될수잇는대로當人及家庭으로는心慮를식이지안으라고親切이만할뿐안이라。病人도亦是萬一醫師가正直이肺病으로診斷하는醫師를오히려排斥하며「나는肺病이안이고肺尖タカル올시다」이라는바等病異名의分辨을못하는不尖者가적지안타。암지못게하는諸生도如此한經路를지나結核第一、二期를治療만하엿슬것이다 그것이次第로肺病으로認치안이하고姑息하는것은恰似히自己품속에火災를낫지못하는것과다를것이업슴니다 此等不注意는諸君의自覺지못함에말미아물뿐만안이요 一般醫師의弊風을改造식이는것이急務인줄로思料하는바이다。余는여기에斷言한노라 世間에서말하는肺尖症이라는것은勿論氣管支炎肺炎이며肋膜炎이모다結核菌의侵入한것으로 이것을疾病이라고할것이다

左의症狀이感覺되는諸君은一刻도躊躇치말고治療를着手할지어다

一、外닭업시胃腸이不健하여지고消化가不良하야食慾이次次減少된다던지

二、그다지感氣가들엇다고도안을만한데햇기침(乾咳)이나며特히아침에츠음이러날때와就寢時가第一甚하던지

三、頭痛症이생기고氣運이조치못하며身體가무거워지어何事던지하기에厭症이생기며然히憂念에서不眠症이이러나서肺性神經衰弱이되는것이라던지

四、조금식熱이생기엿다업서젓다하며午前에는자서이모르나午後三時頃부터는三十七度二三分內外의熱度가되며氣運이柔치못하야頭痛이나는이

五、良日晡潮熱이되지안어도 삽드는일도하지안코도疲困하여지고즘즘眼球가窪하고顴骨(뼈)이드러나고頰(뺨)이붉어(赤)지고皮膚가蒼白해진다던지

六、近來에減少하야顔色이蒼白하고或은赤色이되면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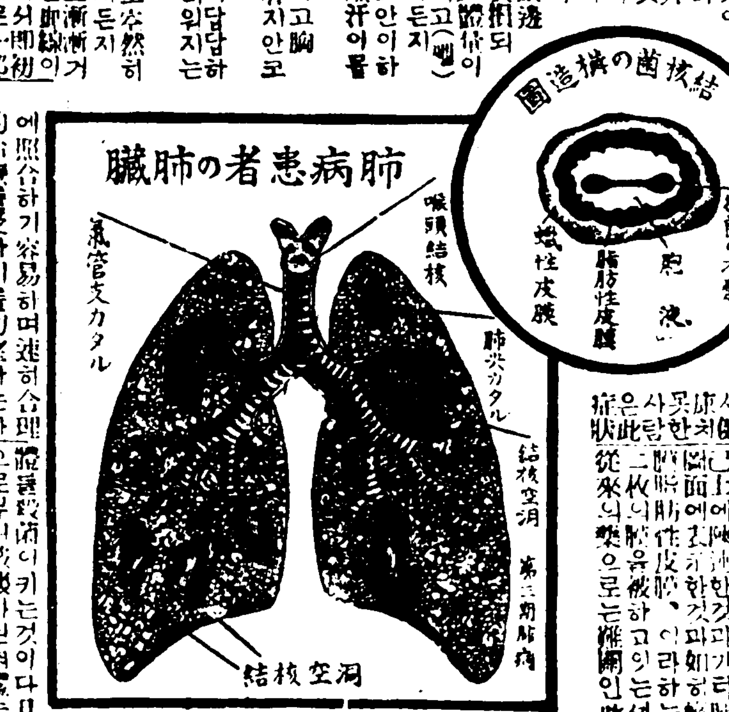
七、時候의關係와從着도안이하고盜汗이흘리는것

八、呼吸이잘되지안코가슴이답답한듯한氣分이生하는것

九、喀痰이나오면서(가래)이몹시뛰고그것이處處에있어도점점하여지는것

十、처음에는精液으로서漸次血液이섞이어서가래가되면 其時期는數期의症狀이며一期初期가二期로되는사람이잇다

從來의藥은何故로効能을엇지못하얏든가? 病者는先히藥劑의選擇이第一必要이다



千百의病狀과理論보다도實効가第一

躊躇치말고 喫怯치말고 本療法을實行!!

肺病無料相談

附屬診療設置 肺病早期診斷

總發賣元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電車通 醫學博士 柴崎鍊明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通 柴崎仁壽堂支店

大連市 柴崎仁壽堂支店

朝鮮總發賣元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柴崎仁壽堂支店

載寧에小作爭議
無理한小作料强請으로

黃海道載寧郡南栗面富泉里에 土地를 京城府住하는 齋藤久太의 仲介로 取貿하는中 今番에 郞의今年度秋收穀全部를 載寧邑內에사는 朴枚培李淳健兩氏가 全部作賭로讓受하야가지고 다시 邑內사는 柳希水外四人에게 分作하야 所謂分作이란名稱으로 小作料五割을 無理히强請한다하야 小作賭主와小作人間에는 小作爭議問題가 起되엿다는데 이제그內容을드른즉 前記地主되는 齋藤久太와小作人一同은 年年히 小作하야오던것을 今年五月頃에 柳氏兩人이 賭主로 契約을締結하고 突然히 今年作賭를 讓受하야가지고 再次로 小作人에게 五割의 小作料를 强要함으로 小作人들은 不應하고 分作賭를 拒絶하엿다더라(載寧)

從來에는이것을 元山客主組合에서 咸南線鐵道의 延長開通과同時에 元產地에서도 販賣할수잇게되엿는故로 元山客主組合에서는 該元產地驛에서 去來를 끈것다하야 問題가생김으로 該地方의 商業家들은 이에對抗策으로 資本을모아가지고 그와 命令의 困難이적지안음으로 陳情할것이라더라

樂山水利認可
去月卅日附로

認可申請中에잇든 咸鏡北道樂山水利組合은 去十月三十日附로 認可되엿다는데 該組合은 一千七十町步工事費六十六萬圓을 投하야 四分方의 工事가 着手되리라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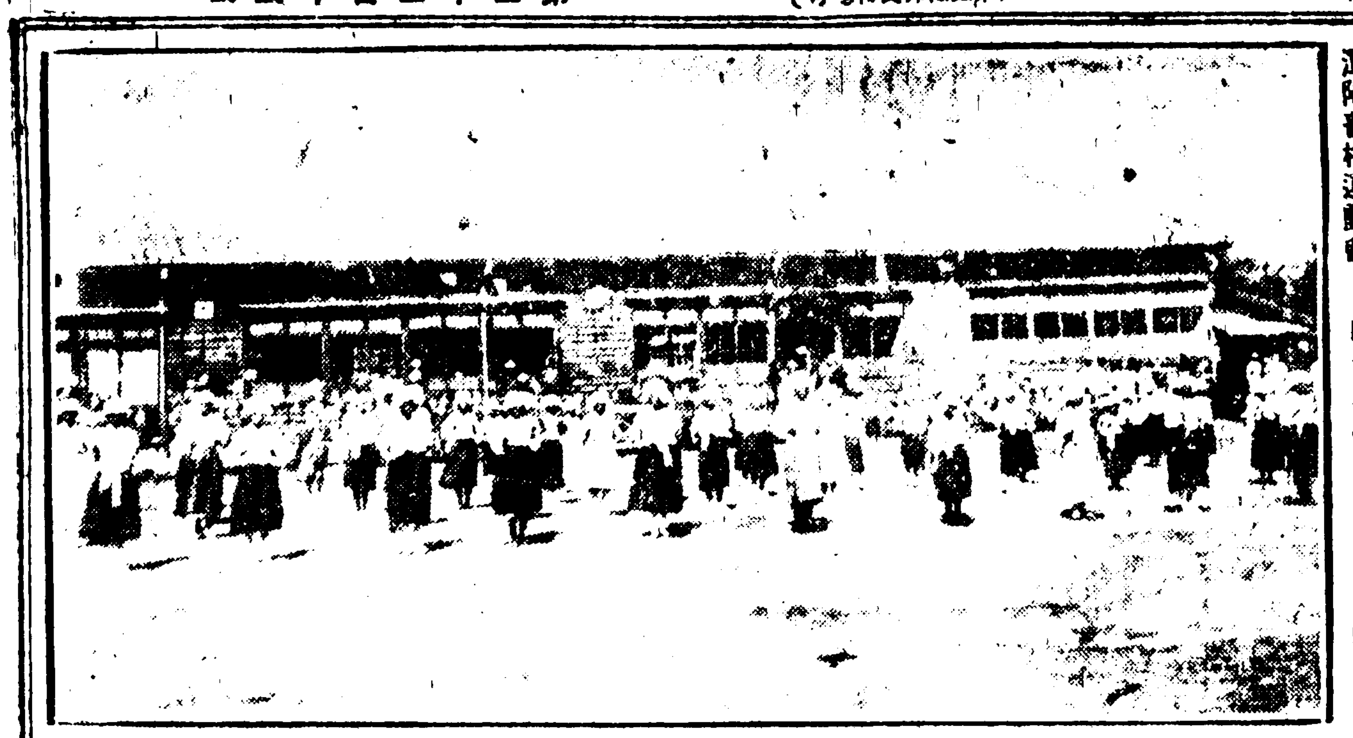
新活躍을開始
馬山勞働會에서

馬山勞働會는 幹部多數가 去番京城某事件關係로 檢擧된以後 沈滯中에 잇섯든바 去十一日下午八時에 馬山俱樂部會館內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陣容을 刷新하는同時에 執行委員을 補缺選擧하고 各部事務分擔을 決定하엿다는데 馬山勞働運動界에는 今後로 新活躍을 開始하리라더라(馬山)

一、各部事務分擔
執行委員長 李昌雨
庶務部 朴 濟 李炳龍
會計部 吳學允 河鳳相
教務部 呂 海 姜德市
組織部 孫有福 吳學允
宣傳部 朴性和 吳學允
一、常務執行委員 朴 濟 呂 海 朴性和 吳學允

兩銀行에陳情
新浦支店設置를

北部咸南商業家들이 成南新浦港을中心으로한그附近 商業家들은 去一日에 殖產銀行과 朝鮮銀行에 陳情書를 提出하고 新浦에 支店을 設立하고 商業家를 爲하야 金融의 緩和融通을 圖謀케하라는 要求를 하엿다는데 그들은 北部咸南에서 每年産出하는 魚物의 收穫高가 約一千萬圓이나되는 이라더라(新浦)



運陽普校運動會 (四、五、六學年女生徒의車輪體操全景)

滿浦鎭線速成을
平壤商議所서請願
鐵道網十年計劃에編入

順川에서 价川、江界를지나 滿浦鎭에 이르는 滿浦鎭線速成에 關하야 平壤商業會議所에서 請願하엿는바 同線은 吉州 惠山鎭線과 이어 나가는 重要한 線路로서 森林을 包擁한 鴨綠江上流域에 多大한 利益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며 鐵道網十年計劃中에 編入되어 順川方面에서 第一着手로 起工할 것이라더라(平壤)

創立二週紀念
開城自由會서

開城自由會에서는 創立한지二個星霜을 지나는가운데 여러차례 一般公開集會를 企圖하엿스나 恒常 當局의 制止로 不得已 그計劃을 實現치못하여오든바 今番 創立二週年紀念式擧行의 件을 當局의 諒解로 開催하게되여 지난 一日下午七時半에 市內中央會館에서 二週年紀念式을 開催하엿는데 一般의 好奇心에 끌리여 集會에 參加하는 者도 多數하야 大盛況을 이루엇스며 臨席警官의 嚴重한 監視下에 順序대로 閉會하엿다더라(開城)

一、事務所移轉하기로決議의件
事務所는 東亞日報馬山支局內로 移轉하야 教務部에서 責任을 지고 管理하되 教務委員外 二人을 選定하야 合同管理케 하고 委員으로 朴濟、李炳龍 兩氏를 選定함
一、會員整理의 件
一、其他事項

河奎杭氏의 司會로 開會되야 來賓祝辭와 會員所感이 잇슨後 同九時半에 圓滿한가운데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開城)

長老辭任受理
馬山基督教紛糾事件

旣報 馬山基督教會에서는 長老 某氏의 勢力으로 牧師 朴承明氏를 排斥한다는 理由로 外教會에 大紛糾가 이러나서 한동안 어지럽게 되엿든 問題는 去月二十四日夜 共同處理會에서 責任長老의 辭退로 말미아마 兩便辭任問題를 取消하기로한 條件下에서 安協的 平和의 解決이 되엿다 한다 旣報한바어니와 長老辭任問題는 教會憲法上 堂會에서 可否를 處決하는 것임으로 去二十九日에 該教會堂會를 開催하고 李相台 李順弼 兩氏長老辭免問題에 對하야 討議한 結果 教會將來 平和를 維持하야 辭免을 受理키로 決議되여 去三十一日午前禮拜時에 一般教人에게 廣告하엿다는데 教會紛糾問題는 일로써 一段落을 告하엿다더라(馬山)

同志懇談總會
府議選擧問題로

仁川府協議員選擧戰이 漸次白熱化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當地에는 從來公職者選擧가 잇슬때마다 有權者及有志가 會合하야 公認候補를 推薦하며 其他選擧에 關한 事項을 討議하는 仁川同志懇談會라는 機關이 잇는바 今回府協議員選擧에 對하야 協議하기 爲하야 來六日(土曜)午後三時부터 內里金融組合樓上에 總會를 開催키로 하엿다는데 當日에는 今回立候補者 以外에 多數의 出席을 希望한다고 公認候補推薦할 일과 從前에 恒常 朝鮮人側有權者中에는 東拓者가만흠으로 有權者의 多數의 票가 一部에 偏在케 되는 것이 잇섯음으로 이를 防止할 事等을 討議할 터이라 이미치게 되엿스로 市民들은 其後筆을

民劇研究會
元山에서創立

多年間劇藝術에 研究가 만흔 元山 靑年 林石基外 數十人이 去十月二十四日下午九時에 同府廣石洞二三番地에 會合하야 協議한 結果 民劇研究會를 創立한바 總會決議事項은 左와 如하며 會員中에는 金明淑 全笑春、李志順等의 女性도 參加하엿다더라(元山)

一、創立第一回의 行演은 十一月中 同樂座에서 擧行하기로 함
一、會務分擔은 庶務部 張文外三人 脚本部 林石基外四人 實演部 金明淑外十六人 美術部 金秋江外二人 音樂部 金國軸外二人으로 함
一、會館는 同人制로 하고 規則은 不成文으로 함

穀物仲介組合
前灘에서創立

咸南前灘市場은 如히 商權의 時勢만 取引과 度量衡不正使用으로 말미아마 農村經濟에 莫大한 損害를 서치는 同時에 市場發展에 多大한 影響을 이미치게 되엿으로 市民들은 其後筆을 端을 防止할 必要를 認하고 各地에 穀物仲介組合을 創立하고자 研究하야 오든 結果 지난 三十日 에 穀物仲介組合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左의 宣言을 發表하엿다더라(前灘)

◇宣言
一、우리는 地方農民을 本位로하야 產業發展과 經濟的利益을 助長하노라
一、우리는 農民의 便利를 爲하야 委托販賣 共同販賣 共同購入 其他貿易을 仲介하노라
一、우리는 農民의 便利를 圖키 爲하야 運輸業을 經營하노라
一、우리는 度量衡의 正과 時勢의 公正을 期하노라
(趣旨書、定款、決議事項略)

巡迴探訪 (百廿六)
無邊한 平野는 平南의 富庫
黎明期의 安州 (2)
安州 一記者

◇鑛業 五年前까지도 雲谷面砂金의 生產이 多少잇스며 距今十年前에는 安州面長川里에도 砂鑛이 잇섯스나 利益이 그리 업든지 모다 停止되고 말엇스며 立石面新里의 石炭鑛이 가장 有名한바 明治鑛業株式會社의 經營에 屬하야 年五萬噸 約四十萬圓의 生產을 한다 地下에 埋藏해 잇는 金銀等 鑛物이 만흔듯하나 探掘이 未及한 狀態에 잇다

◇工業 資本家들의 投資企業이 不無하야 工業界의 特記할 事實이 업다 오직 組合的으로 幾個人이 經營하는 몃個所의 染織工場이 잇슬 뿐인데 此工女들은 大槪가 家庭이 貧寒하거나 생활에 依賴할곳이 업는 그런 사정이 잇거나 依賴할곳이업는 이 事情으로 부득이 勞働하는 관계로 이 工女들이 工賃을 받아 가면 事情으로 甲先人工하야 生活하는 바 收入으로는 歲月을 보낸다는바 其期間은 한달부터 半年間은 見習期間이고 其後부터는 生產技能을 따라 月十圓乃至二十圓의 手數料를 拂하는바 이것도 終日 苦勞를 한다는바 이것은 就業할 곳이 업서서 여기에 온다 女子約三十名이 年齡은 十二歲以上 十五六歲된 頃에는 十名이 平壤山下 組製絲會社로 輸送된다고 한다

◇栗山染織所 市內栗山里에 位置한바 辛西七月부터 金春澤、黎義賢兩氏가 小規模의 工場을 設하고 九綿生產을 主로 하야오든바 其後金偉濟、成炳壽兩氏가 加擔하야 資本金一萬三千圓을 投하고 工女四十五名을 雇用하야 官紗花顔熟素等 總生產額이 年五萬圓에 達한다고 한다

◇安興染織所 栗山里에 位置한바 金春澤氏가 栗山染織所의 自己分을 떼여 讓渡하고 獨營으로 하는것인데 甲子年三月부터 資本金이 一萬圓이며 工女二十四名을 雇用하야 花顔官紗等 年生產額이 二萬七千圓에 達한다고 한다

◇日新染織所 栗山里에 位置한바 韓泰輔、李東稙、金興俊、吳德祈、劉光萬、崔一瀚、李承郁、李東柱、韓國彬、金秉福、金昌洙等 諸名의 資本家들의 組合으로 經營하는 것이라 現拂資本金이 一萬六千五百圓으로 乙丑年八月부터 始業한바 工女는 十二名이며 生產은 熟素官紗花顔等 總額이 年二萬七千八百圓에 達한다고 한다

◇龍興絹織所 辛酉年부터 小規模로 龍興里에서 經營하든바 甲子年三月부터 金芝福、車昌鎬와 二人이 同業으로 資本金一萬五千圓을 出하야 經營하든바 金芝福은 그만두고 現在는 李、車兩氏가 同營하는바 工女는 二十名을 使用하야 花顔官紗 總生產額이 一萬三千四百圓이라고 한다

◇機械製造工場 아직 小規模의 압으로 摘記할 만한 것이 업스나 朴永三 經營의 廣信鐵工場에서는 彈綿機를 巧妙하게 製造하며 文華元氏 經營의 栗山木工場에서는 織組機 製綿機를 最新式으로 製造한다 한다

◇副業 家庭의 副業으로는 菓樹, 養蜂、養鷄、養豚、養牛、養蠶、製絲、織布、織綿等이 잇스나 모다 小規模의 이며 冬期에는 作作業等으로 家事를 補하기도 한다 作料作網도 唯一한 副業이 엿스나 料는 고무靴에 驅逐을 當하는 狀態이다

◇特產 安州特產으론 元綿을 稱하나 元綿는 實로 安州生產이 적고 大槪는 德川等各郡에서 商賈들이 安州로 모혀드는 것일 뿐이며 技術로 有名한 特產品으로는 漆器(食床)刺繡、杞柳製品等이 잇는 바 아직 個人的 小規模 授業에 不過함으로 年產額이 約五千圓에 達한다 하며 刺繡 그리고 漆器는 比較的으로 年產額 이 約萬圓式 牙角等이 是에 次한다

◇次回는大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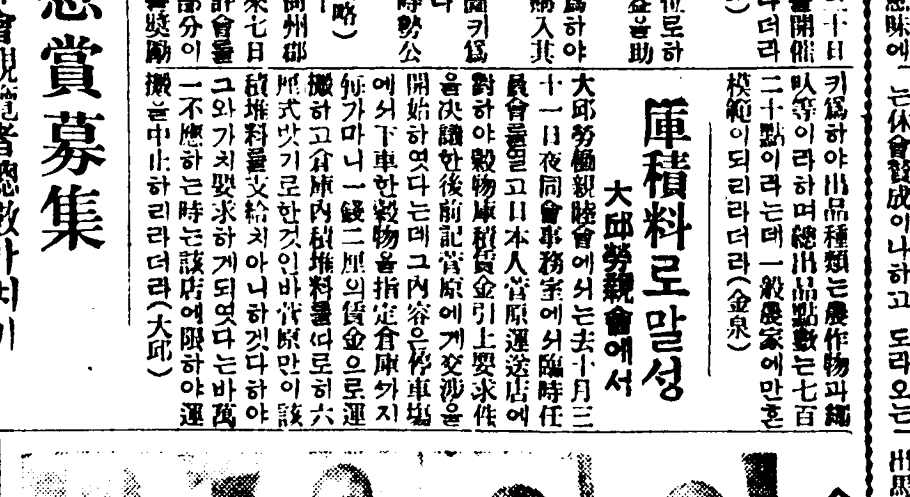
◇商業 過去封建時代에 잇서서는 安州사람이 利智가 發達되고 忍耐力이 잇서 小資本營業이나 店員으로서도 相當히 돈을 모을수가 잇섯슴으로 自來로 『밥버리 먹으려면거리발신이 第一』이라고 工夫가 必要치 안타 고하여 왓다 그래서 雜만 한 資家子弟로 外地에 留學하여 적어온 原因이 이것인바 現代 大資本家의 日人이 擡頭하고 利害가 鮮明하게 되어잇가 由來安州 所謂有名한 商業者들도 商界知識關係로 利益보다 損害를 더 만히 當하다 至今 四五年 前에 와서 商業家들이 至於 久田、藤村、山田等 大商業家가 至市內商權을 左右하게 되어잇가 貿易物品代納金期限을 縮少하느니 時勢를 引上하니 하야 暴利를 圖코저 하든바 亦是 安州가 第二開城이란 稱号를 드리만한 배이라 衆市一致로 日人商을 排斥하는同時에 安州貿易會社를 創設하고 日人暴利商을 驅逐하며 物品을 廉賣하게 되어 一般 需要者의 利益이 만타

◇安州貿易株式會社 以上論述함과가치 日人商의 暴利를 排除키 爲하야 癸亥四月에 金澄植、李承郁、金炳瑛、文用泰等 商業家의 發起로 十萬圓 資本金을 發起하고 創立되얏든바 前記理由로 商利供給을 主로하야 時勢의 安定을 期待함으로 日人側에서도 暴利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엇스나 其後는 더욱 安州朝鮮人 商界의 目的을 到達치 못하고 말엇스나 經濟上 恐慌을 이르켜 오든 中大貨金業者 金仁柏가 어떤 事情으로 現金을 잡어단기 매 殖產銀行에서는 새 支配人 豐福氏가 赴任한 後로는 朝鮮人과의 關係를 減少하여 貸付를 容易히 해주지 안음으로 더욱 큰 恐慌을 이르켜 只今에는 一百五十圓 價値가 든 電話가 四五十圓밧게 하지 안는다 하니 商界의 盛衰與否는 이로서 證明한다 하겟다 反面에 多少의 損害가 及하였지만 바 金澄植 專務取締役 當時 役員이 不信問題를 中心으로 엇마 음의 오든 바 現社長 金澄植 氏는 總株數 二千株中 一千餘株를 現拂二十五圓式 하 株券에 十餘圓式을 주고 獨買를 하여 自己가 家族이 取締役이 되야 個人營業 모양으로 經營을 하여 감으로 一般의 輿論도 만커니와 創立 當時의 目的은 업서지고 말엇다

◇市場 安州郡內의 開市場은 五個所인데 安州市場은 百萬圓이 主要로 年貿易高가 百萬圓이며 新安州市場은 農產物을 主로 年 二十餘萬圓이며 立石市場은 水產物을 主로 年 十六萬圓이며 龍伏市場은 年 四萬圓이며 萬城市場은 畜類를 主로 年十萬圓의 貿易高에 達한다고 한다

◇金融機關 高利貸金으로 有名한 安州에는 各富豪의 活躍으로 巡廻되는 金額이 約百萬圓의 現金이 融通된다는 바 安州富者는 大槪가 自來로 高利貸金으로 資產을 모으게 되얏다 하니 本錢業이 도 商業 其他相當한 事業을 만히 하여온 것은 이로써 推斷할 수 잇다

此外金融機關으로는 安州와 立石에 金融組合이 잇서 組合員에게 若干의 貸付를 하여 주며 殖產銀行 支店이 戊午十月부터 開業되야 商界金融을 支配하고 잇다



◇利原公普運動會의 리ー레優勝選手

興味잇는懸賞募集
品評會觀覽者總數마치기
本報利川支局主催

利川郡農產物品評會와 京畿南部五郡聯合稻多收穫品評會를 來十五日부터 同四日間 開催한다 함은 旣報한바어니와 利川本支局에서는 此機會를 利用하야 總計가 얼마나될는지 알기 爲하야 觀覽者總數에 對하야 懸賞問題를 發表한다더라(利川)

一、懸賞問題
十一月十五日부터 同十八日까지 四日間 品評會觀覽者가 얼마나 되겟습닛가?
二、賞品進呈
一等 本報三個月分 一名
二等 本報二個月分 二名
三等 本報一個月分 三名
三、應募規定
應募期限 十一月十四日까지
應募本報讀者에限함
十一月十八日까지 該會主催者側에서 實際로 調査한것을 正確한 數으로 치고 그와 꼭맛치면 一等、五人以內로틀리면 二等、十人以內로틀리면 三等으로 作定하고 맛친이가 만흐면 抽籤을 하겟다고

庫積料로말성
大邱勞親會에서

大邱勞働親睦會에서는 去十月三十一日夜 同會事務室에서 臨時任員會를 열고 日本人 當原運送店에 對하야 穀物庫積賃金引上要求件을 決議한後 前記當原에게 交涉을 開始하엿다는데 그 內容은 停車場에서 下車한 穀物을 指定倉庫까지 運搬하고 倉庫內積料로 지금까지 每 가마니 一錢二厘의 賃金으로 六十隊等이라 하여 總出品數는 七百二十點이라는데 一般農家에 만흔 模範이 되리라더라

生徒作品品評
尙州郡

化寧公立普通學校에서는 來七日에 該校第二回生徒作品品評會를 開催한다는데 該地方은 大部分이 農業地인 故로 農業과 副業을 奬勵하기 爲하야 出品種類는 農作物과 手工品等이라하며 總出品點數는 七百二十點이라는데 一般農家에 만흔 模範이 되리라더라(尙州)

積堆料를 支給치 아니하겟다는바 萬一不應하는 時는 該店에 限하야 運搬을 中止하리라더라(大邱)

赤露革命紀念
紀念式과講演會開催
全州靑年委員會의決議

全州靑年會에서는 지난三十日下午七時半에 同會館에서 委員會를 開催하고 來七日即 露西亞革命紀念日에 紀念式과 擧行과 紀念講演會를 開催할것 外몃가지 要件을 決議하고 同十時에 閉會하엿다는데 演士及演題는 下記와 如하다더라(全州)
露西亞革命과 無產階級 宋 寧 燮
露西亞革命十週年紀念에際하야 宋 柱 祥
記憶이 새로운 十一月七日 趙 龍 雲
露西亞革命의 史的考察 李 開 基
題未定 河 駿 麒

「正義」發刊準備
仁川兩聯盟에서

仁川勞働、靑年兩聯盟幹部中 康復陽、曹奉岩、高逸、劉斗熙氏 外數人은 一般靑年中 文學을 敎養하며 迷信을 깨치고 科學精神을 發揮할 目的으로 正義社를 組織하기로 하고 爲先月刊雜誌「正義」를 發刊하기로 하야 方今準備中이라 한다

讀者慰安音樂
盛況으로終幕

本報扶安支局에서는 一般愛讀者를 慰安키 爲하야 音樂舞蹈大會를 開催하엿다는데 豫定과 가치 去月三十一日午後八時부터 當地公普校大講堂에서 本報支局長 金漢俊 氏의 開會辭로 開幕되자 數十種平로그람은 五六百聽衆의 熱狂的拍手喝采裡에 맛을맛첫스며 今番抽籤 當選讀者의 芳名은 如左하다더라(扶安)
一等 張龍來
二等 辛泳鏞 呂奎敏
三等 金寬述 朴珍浩 嚴成奎

博川線新設驛

二日府告示三百三十六號로써 來十二月十日부터 朝鮮國有鐵道博川線에 左記停車場을 新設하고 一般運輸營業을 開始할것을 公布하엿는데 如한데 但博川簡易停車場에서는 旅客手荷物小荷物附隨小荷物及一般貨物、定簡易停車場에서는 特히 指定한 旅客手荷物附隨小荷物에 限하야 取扱한다더라
院 平安南道博川郡東一面院洞 孟中里一院間三哩五分、博川 平安南道博川郡博川面西部洞 一院博川間二哩二分

地方論壇
仁川府議改選에際하야
仁川 一記者

一

今月二十日은 府協議員改選期日으로 京城을비롯하야 各地에 協議員改選運動이 猛烈하다 傳한다 더구나 仁川에서도 벌서부터 十數人의 立候補者가 激烈한 運動을 開始하야 各其有權者戶別訪問을하는 等 곳곳에 選擧이야기로 實로 改選氣分이 全市를 風靡하게되엿다 所謂 其協議員이라는것이 當初부터 何等의 決議權을 가지지 못한것이라 事實에 잇서서 協議員이 된대야 무슨 別數가 잇스랴만은 그래도 府民 利害休戚에 關한 府政을 全然 他人이 料理하는 것은 그대로 看過할수업슬뿐아니라 더욱이 其內容이 엇더케 되는 脈絡이나 알어보는것도 全然 無益한 일이 안일것이며 이러한 意味에 잇서서 府民된 우리는 그대로 不關焉의 態度를 가질수도 업는 터이다 이에 其協議員으로 立候補한 사람 及 一般有權者에게 一言을 付托치 안일수 업다

二

첫재에 立候補運動者에 對하야 못노니 府政에 對한 相當한 政見이 잇느냐 絶對로 朝鮮人府民을 爲하야 旣往그릇된 府政을 比較論議하야 當局의 反省을 促하는 同時에 公正合理한 府政을 實現케 할 識見과 自信이 잇느냐 말이다 只今運動者中에는 旣往協議員으로 잇든 人士는 거의 全部가 出馬한 모양이나 其人士가 幾個人外에는 只今까지 在職中에 한번도 協議員다운 職責을 하엿다는 말을 듯지 못하엿노라 府政에 對한 相當한 意見이 無하엿슴은 勿論이오 一年에 멧번式 開催하는 協議會에 出席조차 변변히 하지 안는 이가 殆半이라 하며 또 出席한 人士라도 한구석에서 우두머니 안저 잇다가 무슨 事項을 討議한지도 모르고 畢竟에는 休會贊成이나 하고 도라오는 판인 것이다 그리고 府政도 其中에 무슨 事이

三

設使이 것이 榮譽가 된다할지라도 自己의 一個人의 榮譽로 말미암아 一般府民의 利益을 그대로 犧牲한다할은 넘어도 殘忍한 일이 안일가? 스스로 良心에 빗추워 昨非를 깨닷는 同時에 斷然히 勇退하는 것이 當然한 措處일 것이다 그러고 또 新進候補人으로 말할지라도 엇더한 力量과 抱負를 가진지를 모른다 그러하나 前日協議員과 갓흔 借却 協議員도 못을 할 터이거든 當初부터 自省할 必要가 잇지 안을가? 적어도 府政改良施設에 對한 政見이 잇고 또 그우에 勇猛히 健實히 當局과 쌔홀 覺悟가 잇스면 己어니와 아모 政見도 抱負도 업시 그대로 出馬하는 것은 도로혀 間接으로 光榮이 아니엿든가 이러한 過去의 醜態를 許多히 남겨내인 그네의 가長 今番에 또다시 出馬한다는 것은 實로 그만큼 不當한 推察키 難하도다 若干의 運動費와 當選後의 新聞廣告料 갓흔 것이나 損失하고 말 것인즉 果然 이것이 榮譽? 恥辱?

四

다음에 一般有權者에게 付託하고 십흔 것은 投票할 사람을 特히 選擇하라는 말이다 술잔이나 사준다고 投票치 말라 親分이 잇다고 無作定으로 投票치 말라 적어도 其出馬者의 人格과 識見을 本位로 삼아서 府民을 爲하야 일할 만한 사람을 選擇하야 投票하라 一般有權者가 盲目的으로 投票하는 弊端도 잇거니와 또 하나가 相當한 朝鮮人候補者로 하야금 若干의 朝鮮人候補者가 多數이 結果는 投票를 分散케 하며 彼等 日人으로 하여금 漁夫의 利를 得케 할것은 넘어도 明白한 事實이 될 것인 바 直接으로 府政 一般에 重大한 結果를 招致할 것이다 現在府政上 直感되는 것만 들어볼지라도 府財務行政의 刷新 改良할 必要도 잇고 普通學校 授業料 갓흔 것도 低減할 必要도 잇슬 것이오 또 花平里 松峴松林金谷里 其他朝鮮人 居住地의 道路改修 衛生設備 갓흔 것을 改良施設할 餘地가 許多하지 아니한가

人에게 買收되야 投票하는 그것이다 日本人을 爲하야 末路까지 稱勳다 바진 自我를 全然이 잇는 사람은 朝鮮人種이 아니고는 아닐이라 하겟다 더욱이 當局者가 日本人이며 또 協議員 大多數가 日本人이므로 相當한 朝鮮사람이 參與된다야 그만한 效果가 잇슬가 함이 疑心되는 것은 多言을 要할 必要도 업다 그러나 이 議員이 될 사람은 이러한 條件이 必要할것이다 첫재에 日本말을 알어야 남이 하는말을 듯기도 하고 또 自己의 意思를 發表할수도 잇는것이니 다른 資格이 똑갓고 하나는 日語를 알고 하나는 日語를 모르거든 日語하는 사람을 選擇하라 또 人格과 識見이 잇고 이우에 또 不絶熱誠잇시 일하는 사람을 選擇하라 協議員 全部가 人格 識見이 잇고 健實히 다투게 氣分이 少壯하고 朝鮮人議員의 權威도 잇슬뿐아니라 不識中에 우리에게 利로운 影響이 잇슬 것이다 立候補人이 反省하고 有權者가 覺醒하면 어느 程度까지는 理想에 갓차운 選擧로 될 것을 確實히 밋는다

關西地方

▲定州農聯臨總 定州農民聯合會에서는 十一月二日午前十時부터 臨時總會를 定州城內天道教 紀念館內에서 開催하고저 하엿다 하야 이미 各細胞團體에 通知를 發하엿다는데 多數의 出席을 바란다더라(定州)

▲埠頭勞組臨總 鎭南浦埠頭勞働組合에서는 去月三十一日午後八時에 臨時總會를 市內碑石里에 잇는 同組合事務所에 開하고 預務를 決議한 事項中 懸案이 되어잇든 貯金勵行의 件, 勞働賃金分配의 件을 비롯하야 野積穀物搬出에 對한 諸件과 改定의 件等을 決議하엿다는 바 同組合은 創立된지 四五個月에 不過하나 一般組合員의 熱烈한 努力으로 因하야 漸次 內容이 充實하야 가는 同時에 今秋에 入하야서는 業務가 逐日 進展되야 方今은 基盤이 頗히 堅實하다더라(鎭南浦)

東北地方

◇展覽會와品評會 平康公立普通學校에서는 生徒作品展覽會及 農產品評會를 去月二十七、八兩日間 同校講堂에서 開催하엿다는데 展覽會出品點數 二千餘點 品評會出品點數八百餘點으로 兩日間에 多數의 觀覽者가 잇섯다더라(平康)

◇大衆運動者同盟執行委員會 咸興大衆運動者同盟에서는 지난十月二十四日下午六時에 成興 靑年會館內에서 執行委員會를 開하고 任員改選과 다음과 갓흔 決議가 잇섯다더라(咸興)

◇決議
一、咸興社會運動을 協議하기 爲하야 十一月七日에 成興靑年會館에서 各團體聯合協議會를 招集할 일
一、中央協議會에 派送할 代表는 朴然氏로 選定함
改選任員
李秀乙、朴炯淳、鄭寬浩、金亨植、崔明浩、林貞東、朴然

◇展覽會와 品評會 延期 洪原農民懇談會에서는 秋收當節에 比하야 더욱 農民들의 餘暇가 업게 됨을 따라 集會를 開催하기 爲하야 來十九日로 延期하엿다더라(洪原)

畿湖地方

◆仁川兩聯盟會館移轉 仁川勞働聯盟과 仁川靑年聯盟은 會務發展을 따라 從來 會館은 狹隘를 感하게 되여 지난달 二十一日에 外里二百三十番地 新會館으로 移轉하엿다더라(仁川)

◆品評會期에 車賃割引 利川農產物 品評會와 五郡聯合多收穫品評會를 來十五日부터 開催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京釜線、京仁線及 驪州自動車組合의 各自動車部에서는 同會期中인 十一月十日부터 同四日間 川、長湖院、京城各自動車部에서는 各乘客은 個人에 對하야 往復三割引 의 減額을 行한다더라

◆黃氏送別會開催 오래전부터 朝鮮社會運動에 獻身하야 여러가지 方面으로 만흔 活動을 하엿스며 지방에 잇서서도 各團體와 勞

此外 金融組合이 잇서 組合員에게 若干의 貸付를 하며

嶺南地方

◆展覽會期에 車賃割引 私立培材學校 學生作品展覽會를 馬山 商工業組合에서 開催한다는데 馬山 地方各乘客 個人에게 對하야 往復三割引을 하기로 하엿다더라

●衛平社委員會 馬山衛平社에서는 去月二十九日下午八時에 委員會를 開催하고 事業進行方針을 討議하엿스며 十一月一日下午七時부터 依町朴有壽氏商店에서

湖南地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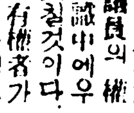
◎朴興坤氏追悼式 全南莞島住 所安面배달靑年會 全南안 莞島農民組合 咸安郡 所安면배달靑年會 其他四團體主催로 去十月二十日에 朴興坤氏의 追悼式을 擧行하엿는데 同氏는 過去의 悲壯하엿든 生涯의 追悼式을 擧行하엿는데 朴興坤氏의 遺族과 일반이 만히 參加하야 盛況을 呈하엿다더라(長興)

◎潭陽勞組聯盟委員會 潭陽勞働組合聯盟에서는 去十月三十日午後八時부터 同聯盟事務所에서 臨時議長 李 氏司會로 第五回 執行委員會를 開催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한後 同十二時頃에 無事히 閉會하엿다더라(潭陽)

◇決議事項
一、職業別組合臨時總會召集에 關한 件
二、手車組合合宿所에 關한 件
三、任員改選에 關한 件

◎高敞記者團造成 全北高敞記者團에서는 同團創立二週年紀念으로 團員一同이 探勝團을 組織하야 去月二十七日부터 約 一週日 豫定으로 有名한 全羅南道 內藏山부터 始作하야 淳昌鈍岩寺와 長城白羊寺까지 名勝古蹟을 探勝하엿다더라(高敞)

教員生活十年
金得洙氏勤續紀念



平壤光成高等普通學校長 金得洙氏는 同校에서 教職을 잡고 十年間이나 勤續하엿슴으로 再昨一日午前十一時에 南山峴禮拜堂에서 同氏十週年勤續紀念式을 擧行하엿다는데 文約翰氏의 趣旨說明과 祝辭等이 잇슨後 紀念品을 進呈하고 閉式하엿다는 氏의 略歷은 如左하다더라

平壤光成學校卒業後 崇實大學에 在學中이다가 大正三年 米國오하요스테안大學에 入學하고 다시 유ー욕「카로비야」大學을 卒業하야 學位마스타ー오부아ー트를 어든 後同校師範大學部 生物科教授免許狀을 受하야 가지고 大正五年九月二十七日로부터 至今까지 光成高等普通學校長으로 勤續하엿더라

飛行代身脚戲 南山物產展覽會期中 飛行機大會를 하자든 것은 機械의 故障으로 因하야 中止하고 그대신에 二日부터 五日까지 三日間 脚戲大會를 하기로 하엿다더라(南山電)

特志와慈善

八田五百坪寄附 本報陽市支局 管內 平北龍川郡楊下面 立岩洞 張昌植氏는 公益事業에 만흔 貢獻이 잇서 方今 學校의 建築에 힘쓰는 同時에 運動場으로 不足한 바 이에 自己의 所有 田五百坪을 寄附하엿다는데 일반의 稱頌이 자자하다더라(楊市)

地方人事消息

◈金甲淳氏(前全北參與官)高敞 郡守 ◈柳礪淳氏(高敞郡守)本月二十一日 本府高等普通學校教師任命 ◈上下 南道 二十日 出發

◆崔◆

湖南地方

●朝鮮人製造工業品評 前馬山●

◇正義社의事業
一、正義社의 事業은 아래와 갓다더라(仁川)
一、正義는 大衆文化의 先驅가 되고 大衆生活運動의 指針이 됨
一、正義는 無產階級 大衆生活運動의 指導機關이 됨
◇正義의使命
一、正義는 大衆言論의 公器가 됨
一、大衆敎養運動의 必要한 「푸레튼」「리푸레트」其他圖書出版、講演、講座、研究會等을 開催하며 一般社會相을 調査함

二十二○番地라하며 그외의 事務所는 外里二百二十番地라하며 해事務所는 外에 創刊號는 늦어도 今月下旬에 出版되리라 한다

無產大衆을爲하야 勞働者로나 無產大衆의 利益을 爲하야 多大한 貢獻이 잇섯던 黃氏가 今番에 全州에 가게 되엿슴으로 當地 各團體에서는 同氏를 爲하야 去月二十日에 送別會를 開催하엿다더라(全州)

●保學社音樂大會 保學社에서는 去月三十日에 東萊靑年會館에서 東萊靑年會後援으로 音樂大會를 開催하엿는데 女子靑年會와 多少의 寄附도 잇섯다더라

●朝鮮人製造品 展覽會 馬山明德 學校에서는 去月二十九日 學生들이 製造한 物品의 展覽會를 開催하엿다더라(馬山)

●金某氏講演 東京에 留學中인 金某氏는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去月二十六日午後七時부터 講演會를 開催하엿다더라(統營)

二等 金化福 徐敬淑 林鍾玉
三等 陳順一 金東翼 金壽云
一等 尹永球 崔貞熙

ClibPDF - www.fastio.com

李處女와約婚後 離婚悲劇을脚色

—남의처녀와반지까지주고밧고—
—본처와속조려고연극을꾸미여—

平壤鄭富豪家의離婚訟 (三)

정엄은 남편으로부터 가치새 간자리하자는말을듯고 반신반 의하야 강서 석삼리(江西石三 里)까지따라간 옥교식(玉敎植)은 그때 부터 한가뎡의주부(主婦)가되 엿다는생각으로 방향한자리의 남편정근모를 청성씻섬기면서 오직 그의참된회 마가잇기만 고 대하엿섯다한다 그러나 엇든녀 자만보면 사지를못쓰는정근모 는어리고 약한자긔의안해를 쓸 쓸한외촌에다려다가 고생을식 히는것은 조곰도생각지아니하 고주야로술을마시며 이녀자저 녀자의뒤를따르다가 필경은진 남도강서군적송면 사무소한인으 로잇는 곽모(郭某)의누의되는 처녀를더러간후에 또다시평원 군한천면가칠리(平原郡漢川面 里)리보봉(李寶鳳)(二 八)이란 처녀를사괴게되엿섯다 한다

處女에情두고 本妻를虐待해

그리하야정근모는본처를리혼 하겟다는조건하에 리보봉과약 혼을하고 그증거의신표로피차 의성자(姓字)를색인반지를난 호아가진 후에자긔안해옥교식 을버리려고 무한히애를썻스나 현숙한 옥교식의치신에서는호 리만한 허물도찾아낼수가업섯 든지한솟에 밥을먹고한집에서 거처를하면서도 남이나다름업 시 지내든태도를변하야소소 한살림사리에도 간섭을하기시 작하엿섯다한다 이리하야죄업 는옥교식의몸에는 억울한책망 이날마다도라가고 무지한매서 지매엽시 덥치엿스나부모가뎡 해준사람이요 평생을허락한남 편이라하야 옥교식은눈물로밥 을삼고 그날그날을지내왓다한 다남편정근모의 이모든혹독한 행동을 도로혀자긔초년의액운 (厄運)으로 돌리고자긔의참된 정성이 어느날어느때든지정근 모에게 감동을주어화락한가뎡 을일울날이잇슬것만 밋엇다하 니 그때 그의심정이야과연엇더 하엿슬가?

무서운매맛고 媤叔집에逃亡

하로는 채뎐밧헤 닭이 드러가 는것을그대로 두엇다하야 정 근모의혹독한 매가또다시 옥 교식의몸에간기 여약한그로 하 여금「이곳에잇다가는바자죽 겟다」는생각을 이르키게한 결과 그는버선바닥으로 그곳 에서 십리나되는 자긔싀오촌 정인영(鄭寅泳)의 집으로 도 망을가잇섯다한다 이것이정근 모에게는더업시 조흔긔회가되 엿스나 그는학대와매질만으로 는도뎌히본처옥교식을쫏칠수 업다고 생각하엿든지자긔의손 으로한평을 짜가지고그에옥교 식을미리너흔후에 그것으로써 리혼의구실을 짓고자마음을작 뎡하고자긔친구인 동리당청주 (張正柱)를불러 친고에듯지도 못하든연극을 꾸미기로한모양 이엇다한다

酒宴을配設後 張正柱와密約

그리하야작년오월 이십오일에 정근모는 자긔의집에주연을배 설하고 당청주를불러다가술을 갓치먹으면서 부탁할일이한가 지잇다는눈치를 보인후에 그것 만드러주면좁쌀(粟)한섬과집 한채를보수로 주는외에소작권 서지얼마든지 주겟다말하엿다 한다빈곤한당청주는 무슨청이 라도듯겟다고 약속을함에정근 모는자긔는 옥교식이를자긔의 안해라고생각지아니한다는 말 을하고 그러나민적상으로부부 가되여잇는까닭으로 엇더케든 지리혼을하여버려야 할터인데 지금은 옥교식에게아모죄가업서 서엇지할도리가 업다고설명한 뒤에옥교식을 간통하여달나고 청구하엿다한다 불량한당청주 가이것을승락하게되엿스니 이 에음수갓든두남자가 어린한녀 자를잡을만한날카로운 발톱은 준비되엿섯다한다=계속=

口頭辯論延期

십이월일일로

이사건에대한구두변론긔일은 재작일일로정뎡되엿든바사정 에의하야 오는십이월일일로연 긔되엿다한다

四海閃光

漁船이遭難 함북성진군학 남면룡대리(咸北城津郡鶴南面龍台里) 리국범(李國範)은 지난이십육일 오후 여덟시경 에선부세사람과함께 정어리 잡으려 룡대진을떠나서 이리 쯤상거되는곳에이르매 고기떼 가만흠으로 그물을 던지고 기둘르는동안에 돌연간에 급류 가흘러서 그물이암초에 걸리 게되자 그것을건지려고무한히 애를쓰다가 결국 배까지암초 에부닥치여서 선톄는 파손되 고선원네명은 맛츰 그곳을지 나는어선을맛나간신히구조를 바닷다는데 손해액은 약오백 여원가량(단천)

橫領코被捉 고양군지도면 행주리(高陽郡知道面杏州里) 어심칭번디 조회벽(趙化碧) (二二)이가 나락두가마니를 소 에실코 지난달삼십일일에 시 내남대문(南大門)시장에와서 이십여원에 팔아가지고 도라 가는길에 동시장부근에서 본 적을 충북청주군부용면 부강 리(淸州郡芙蓉面芙江里)에다 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도라 다니는 리춘호(李春鎬)(三六) 이가 말을부치기시작하야 자 긔도 고양일산(一山) 사람이 니 가치가자고 속히어 종로 (鍾路)에이르러 기위 소가잇 스니 광목두필만 실혀가지고 가면 일원을주마하며 어느모 퉁이로 드러갓다가 나와서 는 돈오십원이부족하니 뒤여 달라하여 돈을비든다음에 그 만 슬행방을하다가 본뎡(本 町)서원에게발견되여 동서에 인치하고 방금취조중

寡婦를따려 황해도안악 군안악면 평정리(安岳郡安岳面坪井里) 박신옥 (朴信玉)(三×)이란녀자는 이십일일에 동리당윤종(鄭允種)(三三)이란 남자에게봉시마키약삼주간치 료할진단서를내여가지고 지 난이십구일에 자긔 정윤종을 걸어안악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를제긔하엿다는데자긔박 신옥은 장남 용산(川三×三) 을데리고 넉넉지못한고생사 리를계속해온지십여년이나양 육하야 오든중용산이가십사세 가되여 벌서수년전 부터옵내 보통학교에 통학케되엿는바 지난달이십일에 자긔정윤종 의아들인 원일(元×一)과 학교에가치오든 도중에서 약 간의말성을 한일이잇다하야 그익일인이십일일아츰용산이가 학교에가는것을 자긔원일의 아버윤종이가 자긔아들과 싸 홈을하엿다는리유로 용산의 뺨을 힘푸로때리엿슴으로 그 것이 어른들의 싸홈이되야그 외어머니가자긔윤종의집에가 서 말청을하다가 정윤종에게 맛고 그가치 고소를대게

密輸出을口實삼아 放銃하고米穀強奪

밀수출한다는엉터리업는구실을잡아 총을노으며소와쌀을함부로빼아서가

中國官憲과同胞被害

白米六十石沒收

지난이십일일오후여섯시경에안 동현하류도구(安東縣下流道溝) 장첨현(張詹鉉)은삼도랑두(三 道浪頭)부근발수오도구(拔 水五道溝)에잇는농민들에게서 백미(白米)오십구석이두를사 서 하류도구로운반하는 도중에 서 중국인 관세국원(關稅局員)에 게 밀수출하는쌀이라고발포후전 부를몰수하야 그쌀은 세관창고(稅 關倉庫)에너헛다가 전부팔어버 리고말엇는데 전긔당첨현은 그 쌀을사다가 다시소매할 목적으 로그디방중국 관헌에게 산미승 허가서지 엇엇섯슴에도 불구하 고밀수출이라고 몰수한일과 함 부로총을노하 선원한명은 행방 불명이되엿다더라(신의주)

農牛三頭를強奪

지난이십삼일오후열두시경에박 영(朴永)이가 농우 세머리를삼 도랑두(三道浪頭)와 하륙도구 (下六道溝)두사이압록강(鴨綠 江)을건너중국관헌이밀수(密 輸)라고 함부로총을노흐며그소 세머리를전부압수하엿다더라 (신의주)

二名死傷

가스중독으로 한명은죽어버려

평북어업회사(平北漁業會社)소 속조일환(朝日丸)이지난이십구 일에삼도랑두(三道浪頭)에서신 의주(新義州)를향하야오다가풍 결이험함으로 신의주에 도착치 못하고 안동현(安東縣)긔뎡목대 련긔선잔교(大連汽船棧橋)에뎡 박하엿다는데 그날밤에 그배의 중앙창고(中央倉庫)에서자고잇 든리지명(李子明)(三〇)은 목탄 와사(木炭瓦斯)중독으로마츰내 사망하엿고 가치잣든동삼표(?) (二?)는 중상을당하야 고민중임으로 지난 삼십일에안동현성천의원(成川 醫院)에입원하야 치료중이라더 라(신의주) 는아마 그전날밤에 안동현에가 서술을사먹고오다가그곳흔인덕 에서여러차례가운데드러가죽은 듯하다더라(신의주)

丹城降雪

단청에도지난이 십일밤에처음으로눈이왓다는데 지이산(智異山)에도십구일에벌 서눈이내리엿다더라(단성)

中國人惡地主 農具로同胞斫殺

—무리하게소작료를내라고하다 말못해농구로따려그만죽이여—

鳳凰城에서犧牲된慶北出生李錫喜

긔보=봉황성(鳳凰城)에서중국 인지주에게 매를마진리석희(李 錫喜)(三五)의 진상을일본령사관 에서조사중이라 함은임의보도 하엿거니와 전긔리석희는 경북 풍긔군초현면(慶北豊基郡初峴 面)사람으로서 금년봄부터봉황 청에이주하야 가지고 왕도세구 왕도천(王道川)에사는중국인디주하 준산(夏俊山)의토지를소작하기 로하고 수확의반분을 논는기로 계약하엿는데 추수를 다한후에 와서는 전날계약도 소용이업다 고다시수확의 칠분을 강요함으 로강약의 부동으로 쏘할수업시 그도용락하엿스나 다소간 언쟁 이되여 하준산과 밋그가족이달 려들어농구로써 그가치 구타하 야안동현(安東縣) 태성당의원 (泰誠堂醫院)에입원치료중이엿 는데 리석희는 너무몹시구타를 당하엿슴으로 회생을 못하고그 만지난이십구일 오후여섯시경 에절명되고말엇다더라(신의주)

鴨江鐵橋에怪屍

조선인인듯

지난일일새벽에안동현(安東縣) 신발교부근에서 조선인 한명의 시톄를발견하엿다는데 주소미 상의사십세가량된한자고리에회 색바지를입고 검은또수를 인사 람을 어느편으로보든지 신의주 (新義州)와마뎐동(麻田洞)부근 에사는 농사군비슷하다는바 그

自殺說이有力

◇平壤怪死後報◇

루보=평양 축후소압해서 면 도칼로 목을끈코 넘어진곽윤 서(郭允瑞)(二×)의 의문의 사건 에대하여는 여전히자살인지 타 살인지몰라 의심중이라는데 해

投海自殺

지난일일 오후한시 원산신해관(元山新海 關)부근에서 삼십세가량된남자 가 입엇든옷을버서놋코 바다속에뛰어드 는것을발견하고 소관수상서(水 上署)에서는 부립병원(府立病 院)의사와가치 현장에달려가서 배를타고 시톄를수색한결과 삼 십분만에 시톄를차저서 응급치 료를하엿스나 회생치못하고 죽 엇다는데 그에의복을 조사하여 본즉 경부선(京釜線)영등포역 전(永登浦驛前)지회주(池會柱) 라고쓴「포켓트」용주관하나밧게 업다더라(원산)

부한결과에도 자살인지 타살인 지는 몰으겟다하며 부근풀밧헤 떠러저잇는 면도는 곽윤서가평 소에사용하든것이 판명되여 십 중팔구는 자살인듯하나 그가하 숙에서 나간후에 죽은장소까지 이른시간이 넘우느젓다하야 아 즉도경계는 여전히 하는모양이 라더라(평양)

丹城에染病

경남단성군성 내리(丹城郡城內里)에는장질 부사가발생되야환자집을소독 하고 교통을차단하고 음료수 와일반용물까지폐쇄(단성)

嫉妬로殺妻

시긔하다가자긔처를죽여

평남순천군순천면(平南順川郡 順川面)에거주하는 박모(朴某) (二八)는이십구일아츰에그의처김 씨(金氏)를죽인후어듸로도망을 하엿다는바 급보를접한 순천경 찰서에서는 즉시 관내각처에통 첩하는동시에 범인을수색중 이나아직체포되지아니하엿다는 데죽인원인은질투인듯하다더라(평양)

無罪한妻放逐 土地까지橫食해

황해도 평산군세곡면진보리(平 山郡細谷面鎭寶里)팔백삼십이 번디오덕신(吳德信)(二〇)이란녀 자는 전남편이되엿든 재령군하 성면송향리(載寧郡下聖面松香 里)최병오(崔炳五)(三九)를걸어 인장위조행사와 문서위조죄(印 章僞造行使文書僞造罪)로지난 ... 최병오(崔炳五)에게출가하야멧 해동안을 동거하든바 남편되는 최병오는 아모죄업는 오덕신을 소박하야 대정십년 오월경에리혼 수속을하야가지고 축출하지 한 후가치잇든장모리씨(李氏)가사 망하매 그의명의로잇든 소유토 디가 오덕신에게로 상속되는것 을큰긔회로 생각하고 팔아먹을 생각으로 인장을위조하야 동군 하성면송향리(下聖面松香里)토 디밧류천여평시가일천원되는것 을동리 최창선(崔昌善)김응순 (金應淳)에게팔아먹엇슴으로오 덕신은 축출을당하고 토디서 지빼앗기엇슴으로분함을참지못 하야 그와가치고소를 하엿다더 라(재령)

電氣를應用하야 姙娠與否를判定

언긔로에백거슬알수잇다고

日本醫學界의世界的大發見

의학계의임신(姙娠)의 조긔진 단(早期診斷)은압헤(?)하면씨 의혈청(血淸)과 목내간(木內)씨의뇨진단법(尿診斷法)등 의연구가잇스나 아직확실한것 은업든바 강산(岡山)의과대학 해부학실의의사 모씨(某氏) 가「카다홀레제」를이용하야 협

故姜宅鎭氏葬儀

오는사일풍긔에서

강택진(姜宅鎭)씨의장례는오는 사일풍긔(豐基)소작조합회관에 서영결식을하고금계동(金鷄洞) 선영에사회 단례련합 장으로매 장하기로 하엿다는데 씨의략력 을대강 소개하면 일천팔백구십 어년류월 오일에개성(開城)에 서출생하야 세살때에 풍긔금계 로이거하야 한문을 공부하든주 ...

音樂과演藝

「다그라스」의海賊은 貰金千二百圓

흥행권은단성사에

긔보=영화가파연 소문파가 치던연애활동사진「다그라스」해 적(海賊)은얼마나굉장한것인지를오 겟스나 그영화가한번경성에오 게되는데 시내에잇는각상설관 에는무슨큰선풍이나 불어온듯 이야단법석을하야 조선극장(朝 鮮劇場)과우미관(優美館)사이 에는그영화흥행권 쟁탈전을일 으키어가지고 경찰의심판서지 바뎌서전과 두극장파일본인측 상설관희락관(喜樂館)에서상 영하기로 타협이되어가지고모 다가든날 가든료금을밧고입시 예상영하기로 되엇섯는데회사 측에서는 배급을갑작변경해가 지고조선인측으로는단성사(團 成社)일본인측으로는 황금관 (黃金館)에주기로되어 미구에 전긔두관에서 상영하기로되엇 다는데그래력을듯건대 그영화 의흥행권을사고자 희락관에서 먼저소산(小山)이라는사람을중 간에놋코교섭을하야 당초에는 일원이백원에 경성흥행권을사 다가희락관에서 그세금의반분 을내고 조선인측으로어느상설 관에든지한곳에 흥행권을주어 그세금반분을밧고자 하엿든것 인데조선극장과 우미관은일시 에제각기 그반분흥행권을엇고 자활동을하엿슴으로 결국은긔 보와가든쟁탈전서지 일어나고 일본인상설관측에서도 은근히 경쟁이붓든싸닭으로 료금이일 천륙백원이되어 결국은일본인 측상설관 팔백원조선인측상설 관이팔백원식을 내기로되고사 진은 곳오게되엿든것인데쟁탈 전서지일어나고 법석을하는눈 치를안 회사측에서는금년중에 는 조선에는배급을하지안켓다 는구실로 갑을올리고자하야이 곳쟁탈전은흐지부지한모양이 닛가 소산이란사람은쟁탈전을 하는 전긔세관파는싹돌려놋코 쟁탈전에 들지아니한단성사와 황금관에주기로하고 료금을팔 백원으로올려 이천사백원으로뎡 하야 그것을두관에서반분식내 이고 상영식히기로하엿든바그 사진은 긔위선연도중분허되고 갑은놀게하고 쓰것다는것이엇 것을뒤더라 그래도손은업스리 라고생각한싸닭에 그와가치결 뎡이되고말은것인듯 하다더라

朝鮮劇友會 南道巡廻興行

첫재는대구에

지난달십륙일부터 닷새동안시 내단성사(團成社)에서 성황으 로데일회공연을마친 조선극우 회(朝鮮劇友會)에서 지난삼십 일에봉익동(鳳翼洞)동회내에 서대일회총회를열고 최무정리 와임원선거를한후 이달초순으 로남선디방순회행연극행에 대 한것을결뎡하얏스며 디방순회 에필요한 배경금의상준비와신 각본선택을 개시하얏다는바그 것이 되다 못이나면불일내로곳 출발하야위선대구(大邱)에서 첫날흥행을하리라더라

◇天氣豫報◇ 晴後曇

靜岡知事官舍 放火事件詳報

긔보=일본빈송악긔쟁의(濱 松樂器爭議)가이러낫슬 즈음에 지사(靜岡縣知事)이 동이살랑 쳐월이일 오후세시반에 정강현 (伊東伊三郞)씨의관사를처지르 고자 솜에다회발유를 적시여동 관사현관에다던진범인보락병고 현음안군등 동서촌(兵庫縣揖保 郡東栗栖村) 주소대관동렵친구 본장령(大阪東淀川區本庄町)시 사신문사 당상던의길 (時事新聞 社長上田益吉)(三×)은 방화한후 곳죽으려고칼로목을마시고병 고현경찰부 고등과에 자수한사 건은의외에 도리면에중대한사건 이발각되엿다하며재작일월에아 게재해금이 되엿다는데 공범자 대판(大阪)강옥영(岡星榮)(二×) 과림뎐모(林田某)(×)와공모하 야빈송악긔회사사당련야(天野) 씨를살해하랴다가목뎍을달하지 못하고그와가치지사관사에방화 한것이라더라(대판뎐보)

江南發展會消息

강남발뎐회(江南發展會)위원신 회(?)... 자하얏든바 당분에 개최하는것(?)...

◇朝鮮學生會臨總 지난 삼십일오후세시반에지나려(?)지동 (堅志洞)조선학생회(朝鮮學生 會)창립총회는 지난삼십일오후 예발긔회를마치고 계속개회 코 ... 양(平壤)으로 출발하엿는데 금삼일에 대련으로 향할예뎡 (대구뎐보)

◇團體와集會◇

朝鮮民興會消息

작보=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조동상(曹東相)량 은경찰에서 금지를한까닭으로 일(?)의림시총회를시내경운동(慶 雲洞)천도교긔념관에서열고 개 회치못하얏든바지난월일오후 정한규측회총과식허고다음의각 에시내황금뎡(黃金町)일뎡목일 백사십삼번디에서창립준비위원 령을발표한후동일시이십분에폐 회하엿다더라

一、本會는學生五十相開拜와우 리의理想을發揮하기를期함

一、本會는團結的精神으로當面 한學生問題의自決을期함

무국당(?)、토목과당、경긔도지사、경 국당의 각방면중요인물을 방 문하고진정한바 잇섯는데 진정 위원은선거한후폐회하고 다음과가 튼준비회를개최하엿다더라

한내용은아래와갓더라

▲漢江人道橋擴張件▲自漢江 車終點至永登浦電車延長件▲鷺 梁津永登浦間道路改修件▲鷺梁 津上水給水件▲北面防水堤築造 件▲永登浦鷺梁津을京城府行政 區域에編入件

明濟世、宋乃浩、徐世忠、沈相 玫、張仁煥、宋巽、申鉉章、姜達 東、明以恒、明容俊、李京鎬、鄭 舜永、李昌煥、裴憲、金商圭、金 演正、鄭容洙、吳華英、權耐環 美、魚允鉉、趙喆鎬、李秉旭、金 鎔憲、金暎漢、柳苛、金東轍、權 金煥、金正琪、權泰錫

常務委員

權泰錫、崔金煥、金正琪、金 轍、明濟世、宋乃浩、徐世忠、申 鉉英、柳苛

內外航空界

海濱機向平壤 대촌(大村) 해촌비행대의 비행연습긔 두 채는 작이일오전 열시오분에 대구(大邱) 비행장에 도착하 야 기름을너허 가지고 바로평

本報에揭載할 懸賞圖案廣告!

래 십일월 십삼일 부터
동 십일월 이십일 간

색채로나 광고라는것은 그영업과상품을도안(圖 案)으로이것을혼이광고술이라고합니다 더 커광고술이발달되지못하야든 시대에는 그런까닭으로이광고술이라는것 고술이라는것은 민중에 수지상상(收支相償)과 효과다소(效果多少)로가장조화 리를오로지광고에 의지하는것이 영업과상품을선뎐한다하면 광고 하나의효과도 엇지못하는 ... (이하 판독곤란)

圖案 廣告 懸賞投票募集

左記三日間에揭載하는圖案廣告를보시고그圖案과文案이그의商品과營業에가장 適切한가잘된廣告를選擇하야投票하시옵기를바랍니다投票規定과抽籤施賞、發表의方法 은左記와如합니다

投票規定

一、投票는十一月十三日、十四日、十五日三日間本報揭載하는圖案廣告에限함니다
一、投票는十一月十八日外지本社에到着되여야有效합니다
一、投票는本報에印刷한用紙를使用하여야합니다
一、投票는封套에넣어第四種郵便으로二錢切手를貼付하야京城府花洞 東亞日報 廣告部懸賞係로보내시오

抽籤과施賞

一、圖案廣告의投票數의多少에依하야一、二、三等을選出합니다
一、投票者의選出方法은一、二等으로當選된圖案을投票한者中에서一等一人二等二人三等五人四等十人을抽籤方法에依하야選定합니다
一、抽籤은十一月廿五日午後四時에本社에서本社員立會下에施行합니다
一、當選된圖案의廣告主에對하야本社로부터賞狀을交付하는同時에그商店의經歷、資本、信用、乃至營業狀態等을詳細히讀者에게紹介합니다
一、當選된投票者의住所氏名은十二月一日本紙上에發表하는同時에左記賞品을드림니다

一等 一人 日蓄製蓄音機 壹臺
二等 二人 瑞西製니켈 中時計 一個式
三等 五人 本報購讀券 二個月分 一枚式
四等 十人 本報購讀券 一個月分 一枚式

東亞日報社廣告部

第七回全朝鮮蹴球大會

◇十一月十八、十九、二十、三日間
◇貞洞培材高普球場에서
◇參加團體 小學、中學校團、專門學校團、青年團
◇參加申請 十一月十六日外지
◇參加金 專門學校及青年團各五圓、中學團三圓、小學團免除
◇抽籤 十一月十七日午後同會館
【其他詳細는追後發表】

主催 朝鮮體育會
後援 東亞日報社

公告

一、槐山郡道安面松亭里五番 畓 九參四坪
所有者 同面光德里 延秉寅
一、同郡道安面松亭里二一九番 畓 四八坪
所有者 同面同里 延千八
前記差押財産은大正十五年十一月一日午前十一時當郡에서競爭入札로公賣함
右公告함
大正十五年十月二十五日
槐山郡廳

外科 植村病院
院長醫學博士 植村俊二
電話本局 一七九二 二二七二
京城永樂町二丁目

手足업는人에게急告
手足업는人은悲觀마시고適當한義手足을應用하야天賦를完全히하시오
【見本送呈】
京城本町一丁目
高野義肢製作所
電本一二六番
고모무손발 義手足

모양잇고질긴고무신은
登錄商標 平
商標
상평
登錄
常平고무
販賣部
京城黃金町一丁目
常平고무工業社

學生時計
特價五圓
●地方은代金引換
獨逸製白銅側十六形 치마形八個年保險付
◇堅牢無比◇正確精密◇
◇外觀美麗◇最新流行◇
◇多量卸賣◇特價提供◇
京城鐘路一丁目
信鐘堂時計店
振替京城一八九八六番

偉人金玉均
菁IE 吳宗焯 著
定價六十錢
보라! 韓末巨星의 偉大한抱負와縱橫의術策을!
讀으라 憂國志士의 烈烈한革命과悲憤한末路를!
發賣所
京城寬勳洞 新舊書林
京城堅志洞 博文書舘

特約店
京城太平通二丁目五八番地 會我商店京城支店
平壤府南門通 三豊社
南鮮鐵工場

世界精米界의元祖
米國製最新式精米機
動力界의光明
石油發動機

一日까지判明된 第二回米作豫想
京畿外七道二分四厘減

十一月一日現在各道의第二回米收穫豫想에對하야判明된分은左와如하다더라(◇印減)

	第二回豫想	第一回比較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以上判明된分에依하면第一回에比하야二十三萬九千二百一石(二分四厘)假量減收豫想이더라

全國在米
五百十二萬石 昨年同期보담減少

十一月一日現在全國在米高는五百十二萬八千石假量으로昨年同期에比하야十九萬石이減少이더라(東京電)

京城三井物産 滿洲粟自由買入
大連支店諒解下에

三井物産會社京城支店에서는今回大連支店의諒解下에粟에限하야滿洲에서自由로買入하게되엿슴으로今後此方面에對한京城支店의活動은注目할바이고手外지着手치아니하든木材에도注力

仁取重役會를轉機로 合倂問題再燃?
京取는近近大株主會開催
近近正式交涉開始?

京仁兩取合倂問題는오랫동안睡眠狀態이엿스나仁取重役改選後에再燃할機運이잇든바三日仁取重役會議에서는右合倂問題가반드시正式交涉開始될것가치協議할것이라하야一般이深甚한注意를하고잇는바京取側으로서는이미大株主會에서贊成하고又選定된實行委員에서도數回調査協議한結果其條件까지作成하엿스나其後何等의經過도發表가업슴으로一部株主間에서는委員에對한不平을吐하는傾向이잇고委員도그냥放任하고잇기어려운立場에處하엿슴으로三日의仁取重役會의結果如何를不問하고近近大株主會를開催하고其後의經過及調査의內容을發表하기로委員間에內定하엿다한다如何間京取側은最初異議가업고仁取側도重役中에異分子가排除된同時內藤氏가重役으로推選되엿스며勸信의持株도이미處分되고仁川市民의反對熱도冷却하게되엿슴으로三日의仁取重役會를轉機로하야合倂問題는再次活動期에入하게되리라더라

合倂後 仲買店
自然淘汰는難免

京取仁取의合倂에依하야兩取仲買人은米株二者를取扱하게되야當業者의懸案이든米仲買와株仲買의問題가淸算될것인데兩者를兼業할仲買人은保證金을增額하게될터이며現在京取의保證金一萬圓仁取의一萬五千圓을合하면二萬五千圓이나되는데그리하야그結果는仲買店의數는減少될뜻하다그러나京取側의仲買는大槪米株兼業할것이나仁取側의仲買中에는疲弊한者가有하야二三有力仲買를除하고는株業에參加할者가업슬뜻하며又米株共히仲買店이增加하더라도財界는依然히恢復되지안할것이고또買入도激增할것갓지안함으로仲買店間에는自然淘汰가行하게되리라더라

京城金融繁忙
預金激減貸出增

京城銀行集會所調查十月末現在京城組合銀行帳尻은預金合計七千五百十七萬六千九百六十二圓貸出合計七千百十九萬九千百二十三圓으로前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預金에三百五十六萬七千五百八圓이激減하고貸出에八十三萬二千八百八十四圓이增加하야金融界는漸次繁忙期에入할을窺知할수잇는바內容은如左(單位圓)

預金之部

	十月末現在	同十五日比較
定期預金	[illegible]	[illegible]
當座預金	[illegible]	[illegible]
特別當座	[illegible]	[illegible]
諸預金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貸出之部

	十月末現在	同十五日比較
貸付金	[illegible]	[illegible]
當座貸越	[illegible]	[illegible]
割引手形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手許有高

	十月末現在	同十五日比較
有價證券	[illegible]	[illegible]
金	[illegible]	[illegible]
銀	[illegible]	[illegible]

郵便貯金現狀
十月末現在
人員增加金額減少

十月末日在의調查의全鮮郵便貯金은人員百七十九萬七千九百十八人金額二百十二萬七千六百二十九圓으로九月末에比하야人員은七千六百卅二人이增加하엿스나金額은七萬九千五百廾八圓이減少되엿는바當月은例年郵便貯金이第一減少되는바前年同月에比하야減少한것은[illegible]

골市場設置說
大藏省도調査中

國際取引所員組合에서는調查委員을設置하고取引所內에『골』市場設置에關하야調査中이라고傳하는바一面大藏省金融制度調査會에서證券市場改善에關聯하야硏究者此調查를急行하나此調査方針은前者와多少그趣旨가相異하야國際市場의振興과金利低下二方針으로調査中인데그果然實行可能의與否에對하야一次調查할必要가잇다한다더라(東京電)

朝鐵拂込徵收
爲先來春二圓

朝鮮鐵道는忠北線慶北線의起工費로目下新規借入金二百五十萬圓中에서五十萬圓을充當할豫定으로未入拂込을徵收하야建設費에補充할터인데來春二月頃에二圓五十錢乃至三圓으로拂込을徵收하고繼續來秋又는再明春에二圓乃至二圓五十錢의拂込을徵收할터이며此로因하야拂込金五百十五萬圓과社債發行餘力의二百六十萬圓임으로아즉資金難은업슬것이요拂込은五圓을一時에徵收할案도잇스나不必要의資金을會社에置할必要도업고株主側의苦痛도될수잇는대로輕減코자二次徵收하기로決定하엿더라

滿洲牛輸入禁止
中國牛疫傳播續發

關東廳鈴木總領事로부터十月中國延吉縣洛陽鄕北哈蟆塘地方의牛疫이猖獗한狀況에對하야總督府에報告가왓슴으로朝鮮에서는滿洲牛의輸入을禁止하고또한國境附近部落에血淸注射를行하야防疫中임으로何等憂慮는업겟다더라

小運送改善
二十日頃意見綜合

鐵道局에서는全鮮各驛에對하야運送店의狀況取調의通牒을發하엿는바回答은今月二十日頃에는全部綜合될터인데그如何한方法으로써朝鮮內運送界의改善을할하리라한다此에對하야當局及其有力運送業者의意嚮은縱斷、橫斷으로爲先根本的으로資本의合同을行하엿슴에對하야朝鮮에서는枝葉의部分인小運送부터合同할意嚮인바爲先各驛에出入하는運送業者를第一合同식혀朝鮮內約千二百의當業者를約百五十假量으로減하야그것이實現한後資本의大合同을行할計劃이라더라

米穀鑑定講習會 京畿

道에서는農村의玄米調製改良을奬勵하기爲하야南部主要米産地各面에産米調製改良組合을設置하야組合員等이生産하는玄米는面技手에依하야一次檢査를行한後正式의穀物檢査를受하야有利하게販賣하는中인바此等組合의檢査員인面技手의米穀鑑定에關한技術의練磨向上을圖하기爲하야水原郡에서는去十月二十五日부터三日間振威郡에서는十月二十七日부터三日間面技手에게對하야米穀鑑定講習會를開催하고玄米調製及此包裝에關한實習을行한다더라

蠶業熱勃興
年年蠶室增加趨勢

朝鮮蠶業은朝鮮에最適하야近者蠶業熱이勃興하여가고따라서從來住宅의兼用으로의蠶室도漸次設備하야斯業經營에着手하는사람이不少하며또相當한補助를得하야그施設을希望하는傾向도잇슴으로當局에서는蠶業을奬勵코자桑田植栽와蠶室設備를奬勵함이迫切한事項이라하야調查中이라더라

銀行의信託兼營
信託協會反對

信託協會는三十日緊急理事會에서銀行의信託業兼營에對한對策을協議하엿는데昨一日大阪側과協議한結果銀行側의策動은信託業의發達을阻害한다하야그反對理由를發表하엿더라(東京電)

日人朝鮮人不渡業別

京城手形交換所十月中의不渡는日本人十五朝鮮人二十二로職業別은如左

	日本人	朝鮮人
自轉車	一	一
雜貨	一	四
貸金	一	一
映畫製作	一	一
請負	一	二
時計	五	一
綿布	一	四
穀物	一	一
海産物	一	二
菓子	一	一
靴	一	一
醬油	一	一
未詳	七	九

九月振替貯金受拂高

九月中朝鮮의振替貯金取扱高는受入口數十三萬五千百十九金額千六百五十一萬八千九百八圓拂出口數四萬四千八百三十金額千五百九十八萬六千三百五十五圓으로此를前年同期에比하야受入口數二割五分金額二割三分拂出口數一割이減少하고金額一割이增加이라더라

銀行券發行高週報

一、銀行券總發行平均高 八〇、九三八、六八五
內
制限外發行高 四二、二九九
正貨準備發行平均高 二〇、五二二、八九八
保證準備發行平均高 五〇、四一五、七八七
二、週末銀行券發行高 八二、六二〇、〇七八

◎朝鮮銀行券 一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合倂後 銀行金組間의 預金利率協調
今日中에發表?

銀行側과金融組合間預金利率協調는利下後趨勢는아즉利下가短期에對하야는이미雙方이協調하엿스나勉强問題로確定할수업스며定期預金은도리혀百一로決定하고다만總督府의諒解를得하기로하야一日夜에總督府에서松本理財課長과協議한바京畿聯合會長은去一日午前에松本理財課長을訪問하고大體의諒解를得하엿슴으로二日金融組合으로부터出根理事長銀行側으로부터[illegible]內容에잇서서는預金利下의範圍는[illegible]

兩取合倂條件
拂込株減額은强制키不能

兩取合倂條件은旣報한바와如히十五圓拂込의京取一株에對하야十二圓五十錢拂込의仁取新一株를交與하기로하야現在의仁取株主의新株에는一圓舊株에는四圓의特別配當을行하기로된狀況인데此特別配當의金額은決定的이아니고若干의增減이잇스리라한다五圓拂込한株는十二圓五十錢拂込한株로看做하야若株主의異議가有하면强行을許치안는다는것이此에는大審院判例에도有하며此態度의異議가有한株主에는[illegible]京取株에對하야仁取株[illegible]

利下影響別無

京城組合銀行의十月二十日預金十月下半月對前上半月比較

定期預金	增	一、九六五、七六三
當座預金	減	二四、一〇八
特別當座	減	四一二、六八八
諸預金	減	[illegible]
合計	減	三、五六七、五〇八

期米 前場保勢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昨後場三十圓八十八錢에頓挫하엿는대今朝阪地初付는四丁低하야三十六圓四十一錢을報하니當地는人氣軟弱하야三十圓八十錢에八丁低로初付한後에賣買는稀薄하엿스나底意强硬한맛이有하야八十一錢을示하다가시八十錢에弛하야二本同價로止하엿다

後場稍强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單位石)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帳入價格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賣買高 當 [illegible] 中 [illegible] 先 [illegible] 合計 [illegible] 本期總數 [illegible]

後場三十圓八十一錢乃至四錢에小强하엿스되一般이保合時勢로보는外라에續買進하야八十一錢에又弛하야八十一錢에保合하다가結局八十錢에止하다

各店倭合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中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先限◇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凡調의新甫

前月中旬以來三十圓八九十錢乃至四五十錢臺에서無數히往來反覆하야終是其保合圈을脫出치못하고서今新甫를맛게되엿슴으로新市發會後에는暴落一般의新市에對한期待가實로深甚하엿섯는데新甫가誕生되고보니三十一圓臺를엿보다가다시八十錢臺에低弛하야不伸不押의膠着商狀을呈하니先望的氣分이滋生하야人氣가믄득離散하는觀이有하다그러나月初에凡調를呈하는商勢는每樣中旬以後의騰望이多하다는十月末日殘存米數據發表와第二回米作豫想發表가不遠한즉要컨대其材料出現하기前靜寂의現象일것이니目前形勢에만放心할수업는바이다

動機待의人氣

新甫發會의新市는誕生하엿스나다만强軟仕手의深切한策動이잇슬뿐이오何等人氣에刺戟을줄만한動機가無함으로亦是乾燥無味한商況을反覆한다前月末에農林省에서發明한米作成熟不良說도不下强派의買氣를一層誘引한것은事實이로되아즉까지其程度가判明치못한今日에强派로서도無[illegible]

買腰深甚

京城淺野側買物이不少하지라其中限은次次로處分할肚裏이오其中限으로當限物을[illegible]如何한爆發에遭遇할지는自然膠着될수밧게업다結局强軟兩派가서로動機를기다리는商情이라할수잇다

米豆餘墨

◇…昨日大阪의四十六錢에서七十一錢에躍騰하는光景은맛치무슨動機나發生한것갓태엿다
◇…그러한데다시四十錢臺에低迷하야沈淪하는것을보면特別한動機잇슴이아니라買便에서當中은賣退한고新甫를換買하느라고그러한突商를示現하엿든게로군
◇…大阪의買方으로말하면强派主將의潮先이健在한外에岡半山內가또사기買出動을始作한다하니當方에는一流아니나는는說樣이로다
◇…有名한買手는擧擧히出動하는데도不拘하고步調는低迷하는적이恒多하니이것이正米實勢의騰近이나또는動中一靜의現象이냐
◇…當地中限取組도近三萬이엇거니와阪地의當中取組가三四十萬이나잇슨즉終始平凡한樣者狀況으로맛칠理가萬無하다十分鍛鍊한後에볼만한波瀾이잇지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六圓五十一錢

東京期米

前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後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價	今日止價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兵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桑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延取引

釜山 賣買高 [illegible] 神力 [illegible]
大邱 賣買高 [illegible] 神力 [illegible]
群山 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株式 前場閑散 京二取日

▲京取二十錢低▲大新六十錢低▲鍾新一圓十錢高

當地仕手乏觀

今朝에大新은阪付九十六圓二十錢後軟化味임을보고當地는極閑散의場面으로付價不成하고九十六圓五十錢步調後五圓八十錢大引이엿스며京取는二十八圓六十錢步調後八圓七十錢大引이엿고鍾新은超然高로百四十二圓步調一口이엿다

目前無期待 突込賣警戒

目下에四圍의事情을考察하면極히平平凡凡하야一般人氣를刺戟할만한材料가업슴으로도모지積極的態度를避하고다만傍觀而已임으로市勢는極히軟弱하야賣氣를助長하는傾向이잇다그러나顯著한新規賣物이업슴을보면(一)金融緩漫(二)[illegible]部環境의硬化(三)[illegible]

鍾新伸氣尙多?

鍾新은米棉印棉等高로棉絲가反撥함을伴하야鍾新의買氣가促成되고따라서市勢는漸次底强을呈하나今朝에阪地는百四十二圓三十錢付後三圓二十錢高價外지를示하엿다대當地도百四十二圓의硬調로進한다하나無謀한賣는警戒할바이다

京取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鍾新=[illegible]
◇大新=[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大新=[illegible]
◇鍾新=[illegible]
◇久原=[illegible]
◇新東=[illegible]

前場賣買關係

◆京取一〇〇(買)洪其他(買)京證其他▲鍾新七〇(買)大林新田(買)白井五〇新田道(買)京證其他(바이가이)

後場續軟

▲京取保合▲大新十錢低▲久原二十錢低

主要株取組高

◇大新(買)大林一五〇洪三〇正崎一二四〇成瀨八〇新田二〇七〇定岡一五〇金秀二九〇白樂一三〇(買)白井六〇金龍四四〇古川五四〇田友四六〇京證一九〇田道四二〇南二五二

◇京取(買)大林五〇白井一五〇洪一五〇正崎一〇九〇古川二一〇成瀨二〇新田二七九〇金秀二八〇(買)洪一三〇金龍二〇〇田友六六〇京證四〇新田一〇〇白樂二一〇市川九六〇南一九二一〇〇田道一七八〇南一九二〇〇市川六八〇

◇鍾新(買)洪二〇古川四〇田友一〇〇成瀨四〇新田一〇〇田道三〇南二八〇白樂九〇市川一〇[illegible]大林八〇定岡八〇

後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大新=[illegible]
◇久原=[illegible]
◇仁新=[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大新=[illegible]
◇鍾新=[illegible]
◇久原=[illegible]
◇新東=[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短期算定及日步

株名	日步	算定	代引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二九八、三〇〇枚
累計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取引

株名	前寄	前引	後寄	後引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遠取 [illegible] 日石 [illegible]
鮮紡 [illegible] 富士紡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粗布 大極星 [illegible] 三星 [illegible]
不老草 [illegible] 三神山 [illegible]
三A [illegible] 大寶 [illegible]
金剛山 [illegible] 大鑛 [illegible]
▲煙管 [illegible] 實人 [illegible]
▲綿絲 [illegible]
▲細布 [illegible] 雙女 [illegible]
飛火18 [illegible] 黃鳥 [illegible]
▲晒金布 [illegible] 進軍 [illegible]
▲晒木綿 竹票 [illegible] 格票 [illegible]

大阪三品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前場

現物武州格 [illegible]
當限 一、五〇六 先限 一、五二一

◎京城手形交換

枚數 五、八九五枚
金額 二、二五九、一六六圓

◎日本銀行券 一日

發行高 一、二三〇、一〇三
正貨準備 一、〇六八、二二九
限外發行 九一、九九三
貸出高 [illegible]
(千圓單位)

◎日本金利 一日

	東京	大阪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越月物	[illegible]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illegible]
普通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一錢單位)

◎海外經濟 二日着

倫敦銀塊 二四片十六分十五
紐育銀塊 五三仙八分三
米綿 不變
印綿 八十錢高
英米爲替 四弗八四仙八分五
스털링 一四〇弗八分一
아나콘다 四七弗四分三

◎海外砂糖 二日着

玖瑪實糖 二弗四分一
爪哇糖八月限 二志三分一
倫敦糖八月限 一志三片六分一

穀物市況

◎京城市勢 一五斤

海城粟	[illegible]
鐵嶺粟	同
錦州粟	同
奉天粟	同
昌圖粟	同
八面城粟	同

(中央商工會社米穀部調)

◎仁川正米市勢

㉠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査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粘白米	一石	[illegible]
正租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麻衣太子 (下篇)

春園 作
丹谷 畵

(二十四)

사랑은섧다 (六)

유렴이나 김부가 그러라고 김청을 밋게되기는 어려울것이로되 이러케 차자가서은근하게정붙보이는것을보고는다소간맘이 아니풀닐수가 업섯다。더구나유렴은 정직한사람이오 김부도못난이라는 별명을듣고리만큼 충후는한 사람이기때문에 김청의뜻을아조 의심하려고도 아니하엿다。

그뒤더러 김청이 도로혀김충과 유렴의집에 차자가 사례하엿다는말을듯고 세상사람들도 이말을 다의외로생각하고

『그래도의불한은쉬불한이다』하고 김청에게대하야 호의도가지게되엿다。

유렴은 불국사 사변을듯고 날로김술의 왼수갑흘 것을두려워하다가 김청이 와다간뒤에야비로소 적이맘을노코 하로는사람을 보내어 김충과두업쇠를청하야 달제영을 구원하여준뜻을 감사하는 잔치를베풀엇다。

그날에 김충은 유렴시집에상객이되어 극진한대우를바닷다。

유렴은 아들이업고 오직후실에 계영하나가 잇섯슬분임으로 유렴내외는 김충을 친아들가치귀애하는정을표하엿다。

계영도 한자리에안저 김충을 졉대하고 맛잇는 먹을것을권하엿다。계영은 이날에약간얼굴에 상긔가되어 그맵시 봉송아꼿가치 붉그레하고 눈에는수삽한태도를가진중에도 억제할수업는깃븐우슴을 띄엇다。무슨일이잇서하얀계영의두뺨이삽분삽분꼿무늬노힌것자리우흡걸어갈때에는은한 향긔가김충의 코에맛치는듯하엿다 계영은 옷속에당나라에서온 울금향을 찬모양이다 유렴시중도술이 반쯤취하야란간에의지해후원의국을바라보며

『나라일이 점점글러 가는것과 이나라일을 바로잡을 사람이업는것을 말하고는 길게탄식하고 김청의 죄상을말하엿다。그러나 유렴의말은 아모리 슬픈말이라도과도한 슬픔을 보이지아니하고비록 김청의죄상을 말할때에도혜롤입는 말을 쓰지아니하엿다。그의그리길지아니한 첫좃한흰수염과 크도적도아니한 얼굴은모도 온화하기춘풍과가탓다。그러나 그외부드러운말에는마듸마듸 추상과가치 범할수업는 의리가 품겨잇섯다김충은 전부터유렴의 덕행을모르는것이아니나 오늘 사사로히접하야 더욱그의덕을 홈모하게되엇다。한편으로계영의 아름다운모양에 한편으로는 유렴의 엄숙한 태도에 세상에 산다는것이 이러한 세상이다는생각을하고 깃븐 맘으로 유렴은 길게한숨을쉰다。

시는큰힘이잇섯서。선생이 일산 한번이나 자긔몸이나 집을생각 해본일이 잇섯슬가— 언젓슬것이로세。그어른이 주야로생각하는것은 다만 나라 명운이오 나라백성의 힘이니。유또한분이섯네。떠 그의국선(國仙)이라고세상에서 부르는이라오 하지마는 나라일이 잘 되지아니하야 도로해우셧다하니 정희와 진헌도 친이가 잇섯나니。공에와 진헌도 백의국선에게 배와다하나 도로혀나라에 환이되엇지 마는— 그런때이제는 업네。아조우리신라의외인의종(統)이 다더거지엇 네』

『그래도 나는 아직지금은 위홍(魏弘)이 때부터세상이 리는 아주뒤집혀버렷나니。그때에우 리가 정을 불러 나라 일을 당하야도 그 쇼를메고 상소를하고、하다가 슈아(化)하 더니그려다가 거인(巨仁)을 보내엿단 말일세。그 거인선생은 화 아니면큰일이 업는걸세。그 선비들은 고구려가 의업세 피로불만 일보다 먼저하는 선비가 만하얏더니 그대도 누구나 고경문대왕 시절에 만하여도 그 세상에는 악인이보다 선인이 만하엿 다니。내가 젊엇슬때만 하여도 잇는 넷날은 세상이 이러치아니하 렵이주는대로사양치안코술 을바다먹엇다。

온모양에、한편으로는 유렴의온 후한덕에 김충은 일쯕 이세상에서맛보지못한 깃븜을 맛보고 유

『넷날은세상이 이러치아니하

社告

今般本支局記者金承濬鄭周鉉兩君은事情에依하야解任하고右와如히記者를任命하엿삽기玆에社告함

記者 金桂榮
記者 金相珏

東亞日報 江東支局

今般本支局記者任基人鄭鳳錫兩君은事情에依하야解任하고右와如히記者를任命하얏삽기玆에社告함

記者 金泰植
記者 金京浩

東亞日報 玖瀧支局

十一月二日부터秋季特別大興行 大自然의巨人! 無敵의大名馬! 大正界의一流名優! 全作의大名作 日活 靈魂과絕叫 全十卷
大活 三笑士 全六卷
天活 盜賊征伐 全二卷
熱血劇 馬蹄千里 全八卷
大喜劇 [illegible]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〇番

十一月一日부터封切 映畫週間 劇場 ◆過去의暗影 全七卷 ◆水火에뛰어드는女性 全七卷 ◆絕海의危難 全四卷 ◆버리운? 全二卷 [急告不日封切]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石油發動機中에 インターナショナル 石油發動機 一馬力半 三馬力 六馬力 十馬力 優秀한精米機 揚水機 選別機 作業機 京城北米倉町 戶田農具會社

皮膚病 尿病 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晉 午前九時부터十二時 午後二時부터六時 日曜祭日은午前中 京城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八九四

職業紹介 幾十圓이면 大邱洋襪所